

WORLD  
HAUS OF  
MATTERS

II



---

# WORLD HAUS OF MATTERS

## ISSUE 4

---

RECENTLY  
RELEA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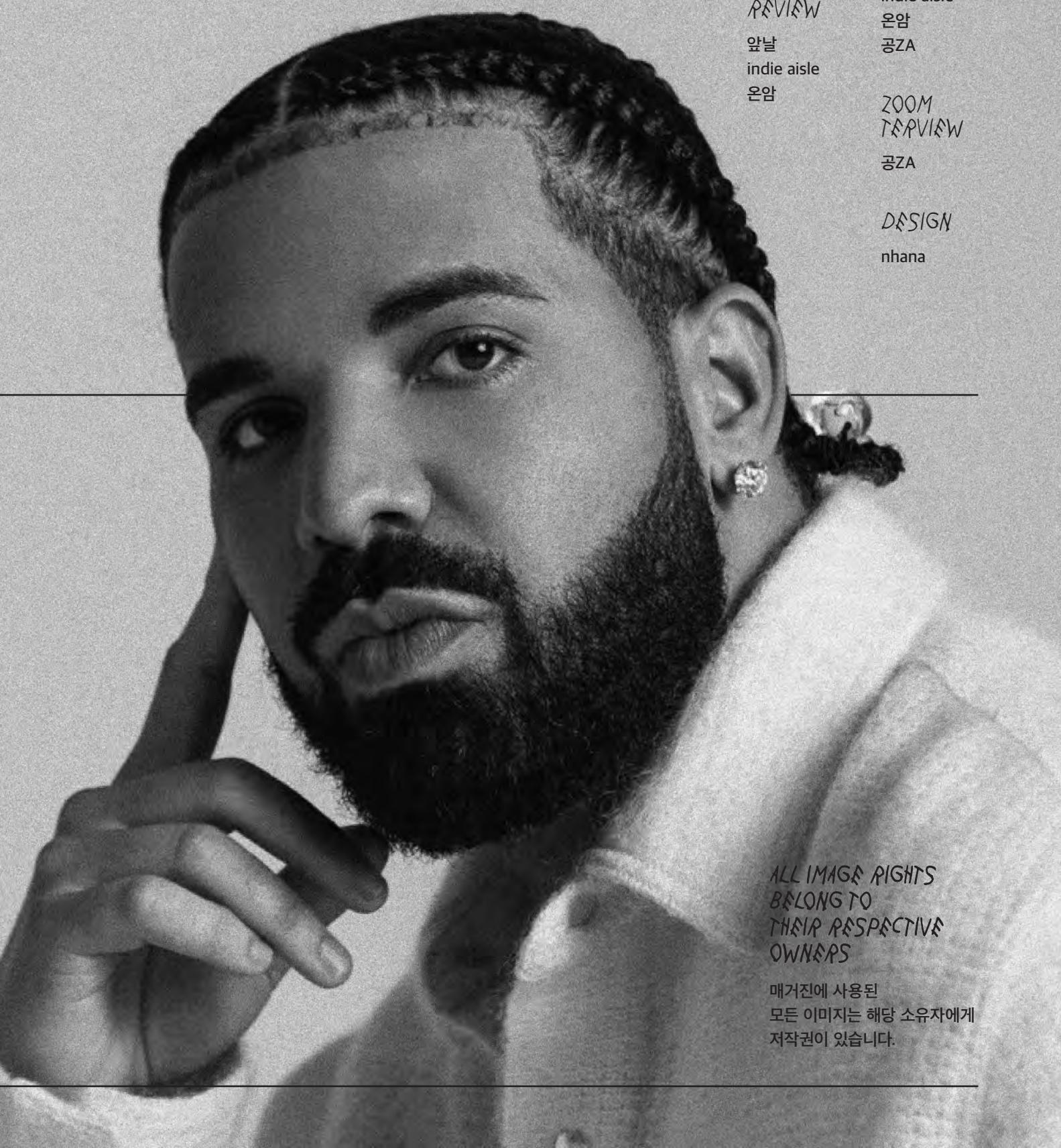
FREE  
TOPIC

FULL  
LENGTH  
REVIEW

EDITORS  
PICK

CLASSIC  
REVIEW

ZOOM  
TERVIEW



RECENTLY  
RELEASED

indie aisle

송치코

앞날

45

온암

FULL  
LENGTH  
REVIEW

FREE  
TOPIC

온암  
indie aisle

45

EDITORS  
PICK

CLASSIC  
REVIEW

indie aisle  
온암

앞날  
indie aisle

공ZA

ZOOM  
REVIEW

공ZA

DESIGN  
nhana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해당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 PACANTLY RELEASED



## Drift

Gaika

1. DRIFT ON / 2. PIÑATA / 3. GUNZ / 4. FIRST AMONG MISFITS (FT THE NARRATOR) /  
5. LA VACANZA (FT KIDÄ) / 6. SUBLIME / 7. EXIT TO CISCO / 8. LADY (FT BBYMUTHA) / 9. O VAMPIRO /  
10. BONEHEAD BEHAVIOR / 11. VICIOUS CHAMBERS / 12. ULTRA SCURO /  
13. AND THERE GOES THE CHALLENGER / 14. LESS BURNERS BIGGER HEARTS (FT THE NARRATOR, AZEKEI)

2023.09.08

인디 래퍼들이 기량을 뽐내기 쉬운 시즌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 영국 출신 익스페리멘탈 래퍼를 마다할 까닭은 없다. 그보다는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린 기껏해야 Little Simz 등 소수만이 독식했던 영국 힙합 씬의 무거운 자취를 관측하고 있는 것이다. '압도적 수준의 경지' 같은 이벤트는 없지만 여기, 가이카(Gaika) 정도면 충분한 진보의 귀감이다. 포스트 평크와 록이 섞인 영국 힙합이라니, Simz의 왕좌를 노리는 이들도 새삼 늘어난 걸지 모르겠다. <Drift>의 프로덕션은 명료하고도 파괴적이다. 청각을 자극하는 과격함이 산재하지만, 상세한 내러티브를 정시하자면 어느 하나 과한 것이 없다. 오히려 올 상반기의 <SCARING THE HOES>에 비하면 면약하기까지 한 감정선과 멜로디컬한 아트록은 예상치 못한 신선함을 운반한다. 영국의 익스페리멘탈은 야성적이고 센슈얼했던 미국인들의 정체성과는 다른, 명징한 록의 경향인 것이다. 따라서 흥미로운 신스음과 듣기 편한 아방가르드 힙합은 음악 자체의 전위성을 쟁기면서도 이지리스닝의 방면으로 걸돈다. 그러나 예술적 가치의 기로에 서게 되면 라디오헤드를 연상시키는 익스페리멘탈의 구획은 공간적 음향 위에 영묘한 표본으로 팽창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Drift>가 소중하다. 어쩌면 아트 록과 힙합의 접목은 이미 시대 뒤틴으로 사라진 것이 아닐까. 전체적 완성도의 관점에선 간간이 고유의 결함이 노출되지만 가이카가 영국의 JPEGMAFIA쯤 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재간이 없다. 아무래도, 나는 그만의 무조와 아트 록 색채에 깊이 빠져든 모양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이카가 추진력 있는 신성이냐'는 질문에 내가 할 대답은 뻔하디 뻔한 프레이즈다. 세상에, 그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 것이다.

by Editor Indie Aisle



# PA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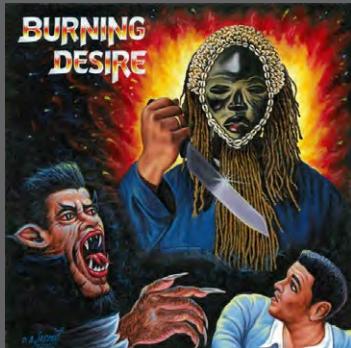
## TOBi

1. Someone I Knew / 2. Get Yours / 3. Flowers (feat. MAVI) / 4. Flatline (feat. Kenny Mason) /  
5. Hoodwinked / 6. Move / 7. Time Out / 8. All Night Long (feat. Topaz Jones) /  
9. She Loves Me / 10. Keep From Falling / 11. Protect You / 12. How Much Longer?

2023.10.12

토비(TOBi)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캐나다 아티스트로 힙합 음악에 뿌리를 두었지만, 재즈나 알앤비, 아프로 리듬까지 차용하는 등 다재다능한 모습을 선보인다. 그리고 3집에 다다라, <Panic>은 더욱 짙어진 향취와 도전을 선보인다. 이번 작도 마찬가지로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이나 달라진 점은, 기존의 캐나다 토텐토를 떠나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인 Kenny Mason, Mavi 등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재즈 랩과 블랙 트랙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추구하던 네오 소울에 가까운 음악적 성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트랙 간의 조화가 상당히 괜찮다. 알렉스 구스(Alex Goose)의 전곡 프로듀싱 아래에 빛나는 토비의 역량이 대단하다 할 수 있겠다. 앨범 내로 드러나는 서사 역시 개인적인 성장이 돋보인다. 이전 두 작품 <STILL+>, <ELEMENTS Vol.1>은 나이지리아에서 캐나다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겪은 일화와 고뇌를 담았다면 본작은 그 너머의 개인적인 사랑, 공동체에 대한 진취적 방향의 사고를 통한 성찰로 나아간 것이다. 그는 패닉이라는 앨범 제목을 달았지만 마치 두려웠던 패닉이 성장을 위한 발판인 것처럼, 본 앨범은 내면적인 성찰과 관계로부터 얻은 희망을 통한 극복을 이야기한다. 그러한 작품 성향에 걸맞게 가사 역시 거칠지 않으며, 다재다능한 장르 이해도를 뒷받침해 주는 뛰어난 보컬 활용이 세련됨과 감미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다. 결국 그에게는 충분히 성공적인 도약이며, 듣는 이에겐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을 제공했다.

by Editor 앞날



# Burning Des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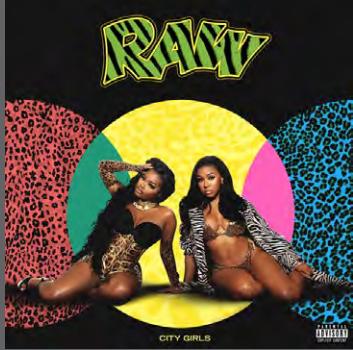
## MIKE

1. Intro with Klein / 2. Dambe / 3. Zap! / 4. African Sex Freak Fantasy / 5. Snake Charm /  
6. plz don't cut my wings (feat. Earl Sweatshirt) / 7. REAL LOVE with fashionspitta /  
8. U think Maybe? (feat. Liv.e & Venna) / 9. Zombie / 10. Set the Mood /  
11. Billboards with Anuoluwapo "Sandra" Majekodunmi / 12. 98 / 13. Do you Believe? /  
14. Burning Desire / 15. THEY DON'T STOP IN THE RAIN with TAKA / 16. Baby Jesus /  
17. Ho-Rizin / 18. Mussel Beach (feat. El Cousteau & Nontay) / 19. Sixteens /  
20. should be! (feat. Lila Ramani) / 21. What U Say U Are / 22. Golden Hour (feat. Larry June) /  
23. Playtime (Interlude) / 24. Let's Have a Ball (feat. mark williams lewis)

2023.10.13

필자는 때로 액면가 높아보이는 얼굴의 뉴욕 래퍼 마이크(MIKE)가 올해로 고작 25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허나 그가 그의 모든 음악을 직접 프로듀싱한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고, 어느새 8년이 되어가는 그의 커리어에서 정규 7집으로 이토록 경탄스러운 성장세를 보인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놀랍다. 마이크의 음악은 철저히 독립 형태의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음악을 지향한다. 구태여 샘플의 질감을 현대적으로 가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라도 하는지, 고전 영화 스코어의 향수를 자극함과 동시에 로파이 음악만이 행할 수 있는 여럿 음향적 실험을 행하는 마이크는 본작에서 마침내 프로덕션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킨다. 소울과 재즈, OST 위주의 샘플 출처를 두며 자신만의 독특한 경계를 형성했던 그는 실제 악기를 투입해 악곡의 선율을 풍성하게 만듦과 동시에 드럼과 신스를 적재적소에 사용해 생생한 시대감을 구현한다. 물론 그의 서정성도 여전하다. 여타 드럼리스, 혹은 추상 힙합의 래퍼들이 그러하듯이 한껏 가라앉은 바리톤으로 애정과 비애의 심정을 동시에 읊으며 음악의 흐름과는 또 다른 곡선을 그리는 마이크의 플로우는 앨범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변화무쌍한 연주이다. "느리지만 역동적으로," 마이크의 진화를 요약하기 좋은 구절이다. 그의 음악이 발전하는 과정과 자신과 세상을 번갈아 비춰 보는 그의 관점이 변화하는 과정이 부분 상호 배타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Burning Desire>는 분명 그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육중한 방점으로 남을 것이다.

by Editor 온암



# RAW

## City Girls

1. RAW / 2. Piñata / 3. Static (Ft. Lil Durk) / 4. No Bars by City Girls & JT / 5. Line Up /  
6. Show Me the Money / 7. Emotions (Ft. Muni Long) / 8. Fancy Ass Bitch (Ft. Juicy J) /  
9. Good Love (Ft. Usher) / 10. Work for It / 11. I Need A Thug /  
12. Flashy by City Girls & Kim Petras / 13. Wigs / 14. Face Down / 15. What You Want /  
16. Tonight / 17. Survive / 18. Fuck the D to the A

2023.10.20

탄탄한 랩과 섹시한 이미지를 무기 삼아 최고의 여성 듀오로서 활약했던 시티 걸즈(City Girls)는 3년 동안 앨범을 발매하지 않았고, 그 사이 Ice Spice, Sexyy Red와 같은 여성 래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야 말았다. 본인들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시티 걸즈가 3년 만에 발매하는 <Raw>는 나름의 애심작인 셈이다. 이 앨범은 시티 걸즈 본인들을 포함해 Quality Control에서 발매되는 앨범들이 주로 그 렇듯이, 예술적인 성취를 위한 트랙들의 배치보단 뱅어 트랙들의 나열에 가깝다. 또한 Yung Miami와 JT의 단단한 랩핑과 훌륭한 웰리티의 트랩 프로덕션까지 본인들이 잘하던 것을 계속 보여주는 앨범이다.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져가며 기존의 앨범들과의 차이점을 두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이 동원한 것이 바로 과거의 명곡들을 적극적으로 샘플링 하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트랩 뱅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Drop It Like It’s Hot’, ‘I Need Love’, ‘From D to the A’와 같은 힙합 씬의 팬이라면 금방 원곡을 떠올릴 만한 샘플들이 튀어나오곤 하는데, 이 앨범 자체가 가진 피로감을 줄이는 동시에 듣는 재미를 배가시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앨범이 매섭게 치고 나온 신예들의 자리를 되찾을 만한 정도의 매력을 가졌는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시티 걸즈가 가진 매력을 잘 보여준 앨범이었다.

by Editor SongChico



# SET IT OFF

## Offset

1. ON THE RIVER (INTRO) / 2. SAY MY GRACE FT. TRAVIS SCOTT / 3. WORTH IT FT. DON TOLIVER /  
4. BROAD DAY FT. FUTURE / 5. FAN / 6. FREAKY FT. CARDI B / 7. HOP OUT THE VAN /  
8. DON'T YOU LIE / 9. I'M ON / 10. BIG DAWG / 11. NIGHT VISION / 12. SKYAMI FT. MANGO FOO /  
13. DISSOLVE / 14. FINE AS CAN BE FT. LATTO / 15. BUSS MY WATCH /  
16. DOPE BOY FT. YOUNG NUDY / 17. PRINCESS CUT FT. CHLOE / 18. JEALOUSY FT. CARDI B /  
19. BLAME IT ON SET / 20. UPSIDE DOWN / 21. HEALTHY

2023.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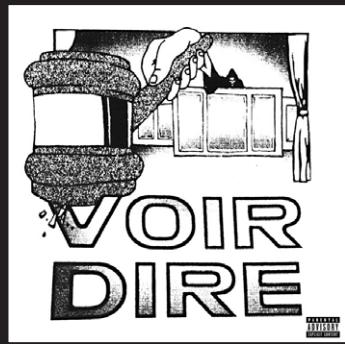
2019년 그의 첫 솔로 앨범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선 Takeoff의 죽음으로 인한 Migos의 해체가 가장 중대한 사건일 것이다. 오프셋은 90년대 멤피스와 휴스턴 등 남부 힙합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 하에 과하다시피 반복적인 흑으로 그동안 쌓아뒀던 감정들을 분출함에 동시에 레트로를 재현한다. 이외에도 Michael Jackson과 그 자신을 동일시하여 전설에 대한 존경을 포함으로써 90년대 남부 사운드와 마이클 잭슨의 정신들을 재창작한다. 앨범은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씩 탐구하며 사색의 복합성을 탐색한다. 클럽 뱅어들과 음산한 비트 위에 써 내려가는 진솔한 가사들은 오프셋은 그의 상태를 명료히 표현한다. 클럽 뱅어 곡들은 마치 불안정한 정서로 인한 폭력성을 표현한 거 같고, 얼터너티브의 향이 강한 진솔한 가사들은 그가 내부를 천천히 훑어보는 내뇌 상황을 재현한 것만 같다. 전체적으로 <Set It Off>는 전작의 컨서스함은 보존하면서 디트로이트 힙합, 멤피스 힙합, 레이지, 얼터너티브 힙합 등을 적극 차용해 전작과 달리 심심한 사운드를 대폭 보강했다. 4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앨범이었으며, 긴 3인 체제 뒤로 앞길이 막막한 싱글 활동의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를 주목하게 만드는 오프셋의 앨범이었다.

by Editor 45

---

# FULL LENGTH REVIEW

---



# FOR ALL THE DOGS

## DRAKE

FULL  
LENGTH  
REVIEW

1

by Indie Aisle



2023.10.06

- |  |   |
|--|---|
| <p>1 Virginia Beach</p> <p>2 Amen (Ft. Teezo Touchdown)</p> <p>3 Calling For You (Ft. 21 Savage)</p> <p>4 Fear Of Heights</p> <p>5 Daylight</p> <p>6 First Person Shooter (Ft. J. Cole)</p> <p>7 IDGAF (Ft. Yeat)</p> <p>8 7969 Santa</p> <p>9 Slime You Out (Ft. SZA)</p> <p>10 Bahamas Promises</p> <p>11 Tried Our Best</p> <p>12 Screw The World (Interlude)</p> | <p>13 Drew A Picasso</p> <p>14 Members Only (Ft. PARTYNEXTDOOR)</p> <p>15 What Would Pluto Do</p> <p>16 All The Parties (Ft. Chief Keef)</p> <p>17 8AM in Charlotte</p> <p>18 BBL Love (Interlude)</p> <p>19 Gently (Ft. Bad Bunny)</p> <p>20 Rich Baby Daddy (Ft. Sexy Red &amp; SZA)</p> <p>21 Another Late Night (Ft. Lil Yachty)</p> <p>22 Away From Home</p> <p>23 Polar Opposites</p> |
|--|---|

드레이크(Drake)의 정규 8집, *<For All The Dogs>*에 관한 인상들을 나는 여기에 몇 가지의 언사들만으로 배열할 수 있다. 혹은 그보다 명료할지도 모른다. 그만큼의 복잡한 탐구와 기획에 대한 진일보를 전언하기에 이 앨범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다. 'Old Drake의 귀환'이라는 기름진 타이틀을 견디기에 *<For All The Dogs>*의 음악적 기반은 부분적으로 낡았고, 아슬해서 불안정할 정도이다. '몇 차례의 미룸을 감내하며 기대하기까지의 음악이었던가'. 내 자신에게 묻는 회한의 질의엔 어스름한 어둠의 미지만이 감각을 기분 나쁘게 들쑤신다.

사실 드레이크의 실패는 2018년의 *<Scorpion>*을 실마리로 끊임없이 예견되어 왔다. 분명 *<More Life>*의 세태까지는 미약하게나마 유지되어 오던 음악적 상상력이, 2018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절멸한 것이다. '트렌드세터'라는 녹슨 이름 아래 팝적 공산품을 물밀듯 쏟아내던 드레이크는 더 이상 *<Take Care>*나 *<Nothing Was The Same>*의 입지전적

예술가가 아니었다. "Way 2 Sexy"를 위시한 <Certified Lover Boy>, 하우스와 힙합을 융성하게 융합시킨 <Honestly, Nevermind> 모두 마찬가지로, 그는 커리어 전반이 멀다하고 퇴보만을 거듭했던 것이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For All The Dogs>는 준수한 음악성을 뽐냈더라도 커리어의 완충제 역할만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 음반이었다.

이전과 같은 음악성을 기대하기보다는, 팬과 시절을 추억하는 이들만이 의미를 부여하는 앨범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렇듯 다시 대중성만을 겨냥한 트랙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은 필경 그가 '스트리밍의 제왕'과 같은 칭호에 미련이 남았다는 뜻일 테다. 그러나 '칠(chill)'하기 쉬운 이지리스닝에 대중들은 환호할지언정, 그의 음악성을 지지했던 이들의 평가는 냉랭하다니 냉랭할 뿐이다.

이를 방증하듯 <For All The Dogs>의 프로덕션은 뻔하다 못해 낡았다. 메이저한 위치에선 Travis Scott의 <UTOPIA>, 언더그라운드에선 JPEGMAFIA와 Danny Brown의 <SCARING THE HOES> 등 예술성에 기반한 전위 힙합이 상향세를 보이는데도 그는 2010년대 후반의 양산형 트랩만을 내뱉는 것이다. 진정한 트렌드세터로서 얼터너티브 알앤비를 차용하던 <Take Care>이나 <Nothing Was The Same> 시절의 드레이크가 무색하게, <For All The Dogs>는 <Scorpion> 시절로부터 6년째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반복할수록 무뎌지는 그 음악적 완성도나 작품성은 마침내 '드레이크'라는 거대한 이름에 드리워진 암운마저 가시할 수 있을 수준이다. 하지만 그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드레이크 자신의 정신적 성숙도다. 앨범 커버를 아들 Adonis의 그림으로 장식하며 부성애를 드러냈던 것과 정반대로, 여전히 '클럽에서 만난 여자' 이야기나 늘어놓는 그의 자태는 '아버지로써의 책임', '예술가로서의 중압감'과는 거리가 멀다. 본인 스스로 자처했던 'Old Drake의 귀환'이, 미니멀한 스타일과 아들로부터의 앨범 커버가 그의 정신적 성숙을 야기한 이벤트였음과 상반되게 드레이크는 아직 바스라져 가는 짊음의 향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다만, 그런 정신적 퇴보가 질 낮은 양산형 음악의 도출로 발로되었다는 점이 참을 수 없이 괴씸할 따름이다.

오프너 "Virginia Beach"는 앨범의 모든 트랙을 통틀어서 가장 깔끔하고 감정적인 무드를 연출하지만 그뿐이다. 그마저도 Frank Ocean의 미공개반 수록곡 중 가장 고평가를 받는 "Wiseman"을 하이 피치 통샘플했음을 생각하면, <For All The Dogs>에서 "Tuscan Leather"의 창조적 드레이크가 완연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더욱 확고해진다. 이어지는 "Amen" 역시도 별반 다를 것은 없다. 청명한 피아노 트릴로 직조된 40의 비트는 흥미롭다 볼 수 있지만, 랩 디



자인과 유기성의 측면에서 "Virginia Beach"와 "Amen"은 극명히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인 것이다. 경편하고 고뇌 없는 플로우와 랩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40의 프로덕션은 더욱 뻔하고 어색하게 느껴진다. 전반적인 장르가 트랩인 것을 막론하고, 앨범 자체의 사운드들이 Migos나 21 Savage 등의 철저한 아류로써 운행한다는 사실 또한 작품의 완성도를 수직 하락시키는 하나의 이유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시작은 "Calling For You"를 필두로 쏟아지는 낮은 작품성의 트랩, 알앤비 뱅어 곡들이다. 유약한 중독성만큼은 챙겼을지언정, "Rich Baby Daddy"나 "Members Only", "Slime Out You"를 필두로 타이트하게 노정되는 드레이크의 이접적 랩은 분명 트랙 자체의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식상하고 정형화된 40의 신디사이저와 지루한 드레이크의 랩은 서로가 서로에게 놀랄 만큼 이질적인데, 이것이 앨범의 완성도를 대단히 망가뜨리는 단초가 된다. 프로덕션이라는 기본 요소가 작품 자체에 치명적인 암적 존재를 드리우고, 끝내는 트랙 전반에 걸쳐 '싸구려'라는 인상을 주는 원흉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이런 MC와 프로듀서의 이질적 관계는 피처링 아티스트와 드

레이크의 합치에서도 다를 바가 없어서, 자극적이고 비루한 협업들은 그 절대다수가 앨범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데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들으면 들을수록 괴리감이 커지는 40 & 드레이크의 희한한 하모니와 마찬가지로, <For All The Dogs>는 마구잡이로 수용된 대중적 피처링의 병폐를 여과없이 상징할 앨범임이 자명해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앨범이 비판받아 마땅할 부분은 시종일관 비슷한 무드로 1시간 25분의 러닝타임을 이어갔음에도 유의미한 주제나 메시지가 눈곱만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을 유발하는 "Daylight", "Fear Of Heights"과 같은 트랙들은 드레이크를 '쿨한 트렌드세터'에서 '지질한 갱스터 흉내꾼'으로 뒤바꾸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것이다. 결국 돌고 돌아 85분의 지리멸렬한 장광설을 끝내고 남는 것은 어떤 환희나 레퍼런스가 아니라 마이클 잭슨과 비견될 수준의 스트리밍 횟수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알듯, <Thriller>의 1위와 <For All The Dogs>의 1위 사이엔 절대로 좁힐 수 없는 장엄한 간극이 서려 있을 것이 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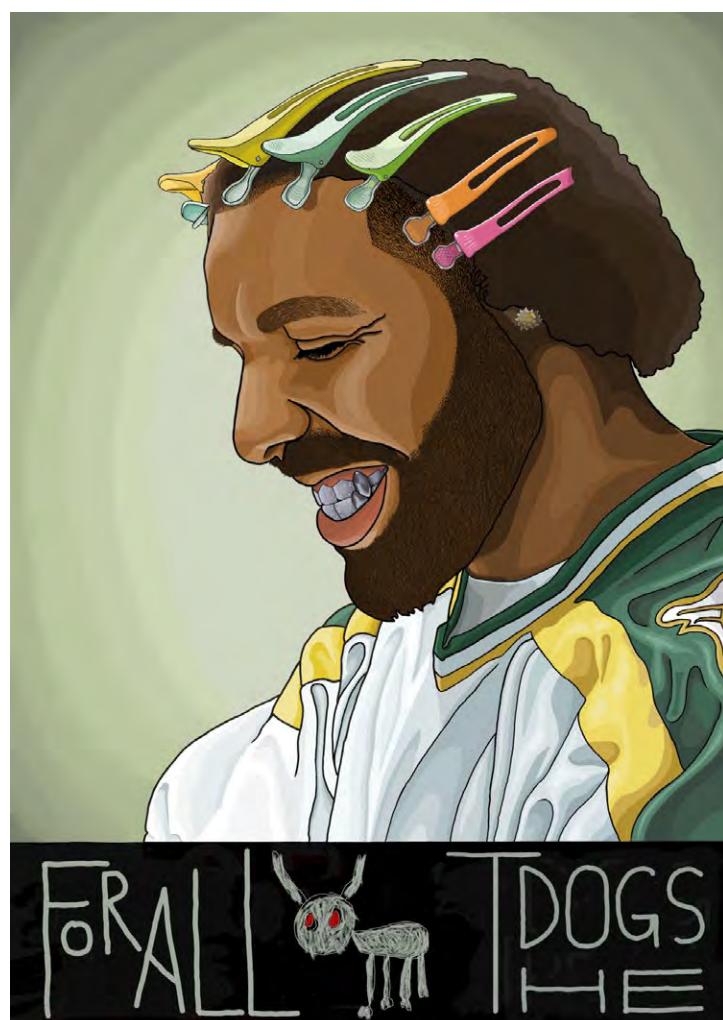
그 어떤 유흥과 대중성의 발화로도 좁힐 수 없는 치명적 간극이. 물론 좋은 곡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4개나 되는 트랙 수에 비하면 너무 나도 미세한 숫자이지만, 전술한 "Virginia Beach"를 비롯, "First Person Shooter"나 "8AM In Charlotte", "IDGAF" 등 드문드문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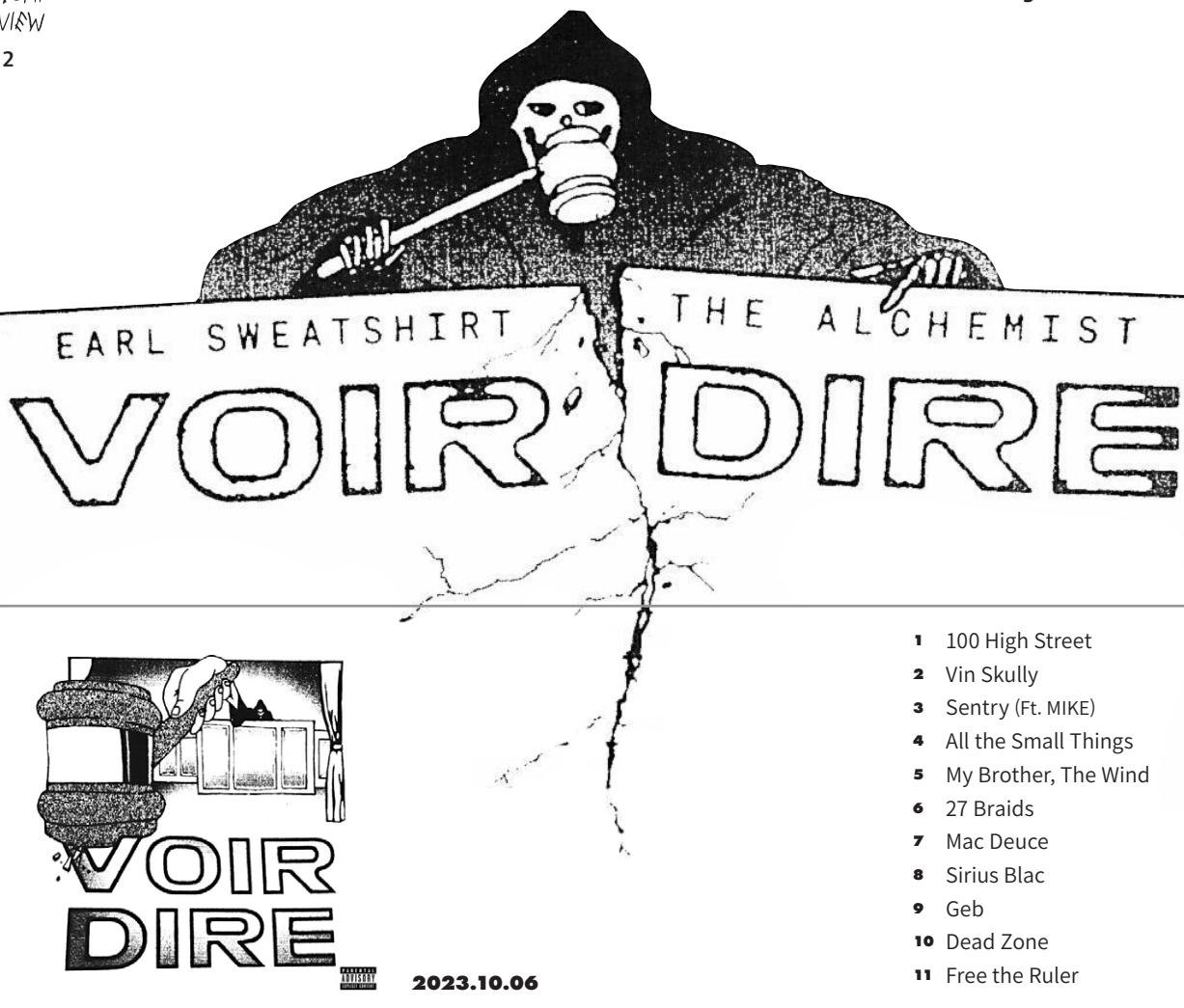
탄을 유발하는 곡들 역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각각 Frank Ocean의 폭발적 감정 표현, J. Cole의 압도적인 랩 실력, Playboi Carti의 플로우를 따온 Yeat의 존재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For All The Dogs>의 처참한 음악성은 더욱 여실히 드러나기만 한다. 그 누구의 피처링도 없이 완성해 낸 "8AM In Charlotte"만이 미약하게나마 <Take Care> 시절의 뭉클한 감정을 절묘히 표구해내나, 오로지 그뿐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청자가 채 감정을 추스리기도 전에 Bad Bunny의 괴로운 팝 넘버 "Gently"를 마주해야만 하기 때문임을 전언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앨범이 대단한 가치를 지니지는 않은 것이다. 청자들에게나, Adonis에게나, 드레이크 그 자신에게나 말이다.

전방위적으로 드릴과 인디 알앤비 등 음악적 시도가 있었으나, 그 시도가 형편없는 완성도를 자랑한다는 점에서 <For All The Dogs>는 완연히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차트인이나 성적 같은 면면들에서 성공을 거머쥐었을지는 모르지만, 당초 대중성에 강한 주안점을 둔 프로덕션에서 다시 한 번 '스트리밍의 제왕'이라는 칭호를 얻어봤자 그것이 유의미한 성과가 될지도 의문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뒤늦게서야 '당최 이 앨범이 드레이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른다. 아들 Adonis를 전면에 내세우고 내뱉는 유흥과 문란부터- 저급한 대중성 앞에 의미없이 소비한 'Old Drake의 귀환'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충족된 것이 없는 이 앨범에 드레이크는 과연 무슨 의미를 둔 것일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드레이크 자신만이 알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스트리밍의 제왕'만으로 기억될 팝스타 따위가 아니란 사실이다. 그는 그보다 자신의 감정을 힙합 비트 위에 표출할 줄 아는 선구자에 가깝다. 그는 그가 비롯되었던 캐나다의 밑바닥을 회고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었던, 지금과는 그 어떤 것도 같지 않았던 시절들을 말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그의 팬들은 그를 '힙합씬에서 가장 감성적인 남자'로 기억할 것이다. 적어도 그들이 기억하는 한, 가장 입지전적이고 쿨한 아티스트로서. 물론 그런 영광을 되돌려놓기 위해 드레이크는 음악적으로 광포한 재기를 할 필요가 있다. 휴식을 가지는 기간 동안에, 그 생각을 가다듬고 진정한 자신을 돌아봐야할 것이다. 힘든 길이란 걸 알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편이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다. 드레이크 그 자신을 위해, Adonis를 위해, 모든 개들을 위해서. **KH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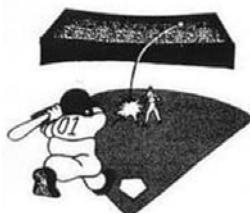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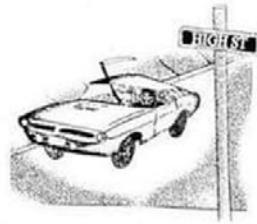


- 1 100 High Street
- 2 Vin Skully
- 3 Sentry (Ft. MIKE)
- 4 All the Small Things
- 5 My Brother, The Wind
- 6 27 Braids
- 7 Mac Deuce
- 8 Sirius Blac
- 9 Geb
- 10 Dead Zone
- 11 Free the Ruler

얼 스웻셔츠(Earl Sweatshirts)와 알케미스트(The Alchemist)의 <Vior Dire>을 듣기 전에, 청자는 그들 각각의 음악적 분위기들을 긴밀히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두 예술가가 합치시킨 하나의 세계도 유의미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집합을 이뤄낸 두 요소의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어둡고 정적인 톤으로 무채색 세계를 직조하는 얼의 랩과는 달리—알케미스트의 색채적 비트는 언제나 그랬듯 유연하고 화창하다. 어두움과 화창함을 뒤섞은 회색지대. 그건 어떤 식으로 이 앨범을 듣던지 간에 <Vior Dire>의 위치를 설명하는 언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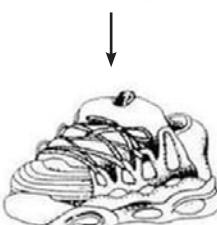
하지만 그런 통렬한 명암의 혼용에 비해 본 앨범의 세계는 거창한 주제 의식이나 예술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앨범 중추에 자리 잡힌 간결함만이 텅 빈 사운드를 의식적으로 설명한다. 분명 <Yeezus>와 같은 사운드 자체적 미니멀리즘과는 차이가 있지만, 유희적이고 즉각적인 그들의 '행위적 음악'이 앨범 전반에 숨 쉬는 것이다. 일말의 계획이나 치밀한 조직도 없이 이루어진 그들의 음악은 이렇다 할 주제 의식을 잃은 대신, 음악을 만드는 행위 자체에 집중해 근사한 곡들을 연성한다. 깊은 통일성, 앨범이란 플랫폼을 이용한 예술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을지언정, 예리하고 탁월한 맛들이다.—이들이 Madlib, MF DOOM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지만— 이런 덕택에 <Vior Dire>의 흐름과 불연속성은 좀 더 날카롭고 세련된 버전의 <Madvillainy> 같다. 때론 즉발적 봇 터치들이 작품의 뛰어난 예술 요소가 된다는 것. 이 앨범에서만큼은 이러한 미술계의 격언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Vior Dire>의 추진력은 날 것 그대로 동물적이다. 앨범 전체를 아우르는 사운드적 통일감이나 주제 같은 것들은 눈곱만치도 없지만, 그 자연스러운 행위적 음악이 곡들의 이 쪽 궤부터 저쪽 궤까지 촘촘하게 이어내는 것이다. 지극히 알케미스트스러운 보컬 루프, 어쿠스틱과 재즈 키보드, 허스키 톤의 무채색 얼 보이스에 아우르며 이들은 서로가 가장 잘하는 것들만을 야생적으로 수행한다. 본능에 기인한 얼의 텁텁한 보이스부터 끊김 없이 구불구불한 프레이즈까지, 앨범에 담긴 소스는 그 어느 때보다 얼스러운 러프함이지만 나른하고 부드러운 것들이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 앨범의 진면목이 고개를 듈다. 알케미스트의 청명함을 거부하는 이들과 얼의 어두움을 불호하는 이들의 교접점, 앨범의 전방위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교접점을 충족하는 것에 그 정신을 기울인다. 따라서 <Vior Dire>은 상극인 두 집단의 팬들에겐 거부할 수 없는 선물로써 다가오는 앨범이다. 음악의 주제 의식이건 뭐건 간에, 이 앨범의 존재 자체가 매력으로 호소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앨범의 분위기는 난잡함과 거리가 멀다. <Vior Dire>의 트랙들은 일절의 통일성 만은 포기했을지언정, 예리한 연결성과 분위기를 통해 앨범 자체의 유기성을 탄탄히 하는 면 또한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관적 소울 샘플에 초지일관 무뚝뚝한 보이스가 곁들여지면 <Vior Dire>은 그 낮은 의식적 통일성에 비해 높은 트랙 간 유기성을 자랑한다. "Vin Skully"에서 "Heat Check"에 닿기까지, "Mac Deuce"로부터 "Dead Zone"을 아우르기까지의 트랙들은 흡사 비트 체인징이 일어난 한 개의 곡을 듣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에 더해 일말의 이질감마저 최소화하는, 두 아티스트의 능숙한 분위기 형성 능력은 <Vior Dire>를 가장 값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100 High Street"의 고풍스런 스트링과 "Vin Skully"의 느긋한 여유로움, "Free the Ruler"의 따스한 추모가 25분가량의 짧은 러닝타임 아래 끊임없이 뒤섞일 때야말로 앨범의 일관적인 분위기가 풍성해지는 시점이다.

한편 간결한 구성과 목적성만큼이나 여유롭고 가벼운 사운드 또한 앨범의 매력을 배가시켜 낸다. <MBDTF>와 같은 맥시멀리즘의 밀도 높은 쾌감이 있다면, <Vior Dire>와 같은 미니멀리즘의 부담 없는 소박함 또한 음악으로써의 독특한 매력을 표출하는 것이다. 낮은 밀도와 가벼운 공간감의 드럼 샘플들이 선험적으로 치고 나오면 스트링과 보컬로 이뤄진 샘플러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른다. 그리고 그 위에서 무뚝뚝하지만 여유롭게 고뇌의 언어를 내뱉는 얼의 랩이야말로 앨범의 탄탄한 추진력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Vince Staples가 참여한 "Mancala"에서도, MIKE가 힘을 보탠 "Sentry"에서도 그들의 색채가 오직 부분적인 파트에서만 피력된다는 사실은 종종 얼의 강력한 무게감을 환기시키는 듯하다. 아마 그들은 프로덕션적 창의성을 더 뽐낼지언정, 언제까지나 얼의 거칠고 투박한 랩에는 비할 수 없지 않을까.



물론 <Vior Dire>이 완전무결한 앨범이라는 것은 아니다. 너무 간결한 나머지 다소 뻔하게 느껴지는 "27 Braids" 같은 트랙이나, 미니멀의 선을 넘어 낮은 완성도로 갈무리 된 인상을 주는 사운드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앨범은 그보다는 본질적인 면에 집중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이전의 무거운 예술적 중압감과는 궤를 달리한다. 장엄하고 진득한 예술적 성취보단, 간결하고 익살스런 미니멀을 추구했다. 그것이 과열된 상업적 공산품들과 장엄한 예술품들 사이 <Vior Dire>이 표구하는 유일의 차별성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지점들에서 얼 스웻셔츠와 알케

미스트만큼 독창적인 아티스트들도 흔치 않다. 이들의 음악적 태도와 사운드 프로덕션만큼 독창적인 음악 구획을 지닌 사람들이 대체 몇이나 될지, 나는 그저 다시 한번 의문을 표하게 될 뿐이다.



전반적으로 눈에 띠는 단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탁월한 특장점도 없는 앨범이란 점에서 *<Vior Dire>*의 위치는 참으로 애매하다. 간결하고 익살스러운 EP 앨범으로써의 매력은 충실히 하지만, 그렇다고 이 앨범 '명반', '수작' 같은 언어들로 명쾌하게 설명하기도 꿈꿔한 것이다. 다만 *<Vior Dire>*은, 그보다는 협업 자체에 의의를 둔 유희적 음악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 평가의 궤를 달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린 그저 얼의 어두움과 알케미스트의 쾌청함이 섞인 그 회색지대, 그 회색지대들을 25분 동안 즐거이 묵시하면 그만인 것이 아닐까.

확실한 진리는 이들이 있는 한 힙합은 망하지 않을 거란 것이고, 아방가르드 힙합의 구애는 끝나지 않을 거란 사실이다. 아마 우리는 그 찬란한 약진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Vior Dire>*은 그 단초이거나 회귀점이다. 다소 고루해 보이는 소울 샘플일지라도, 얼마나 그 소스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위 힙합의 극단에 선, 두 인물의 회색지대가 무엇보다 값지다. 어두운 전위 힙합의 괴짜와 익살스런 소울 샘플 구축자의 만남. 그 회색지대를 정시한다면 *<Vior Dire>*은 마침내 힙합을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나 근사할 앨범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음악을 몇 번이고는 다시 재생한다. 그건 분명 익살스럽고 담백한, 회색의 맛이다. **KH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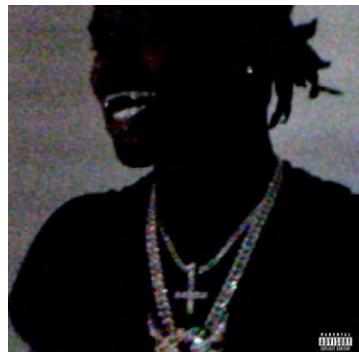


FULL  
LENGTH  
REVIEW  
3

# A Great Chaos

## Ken Carson

by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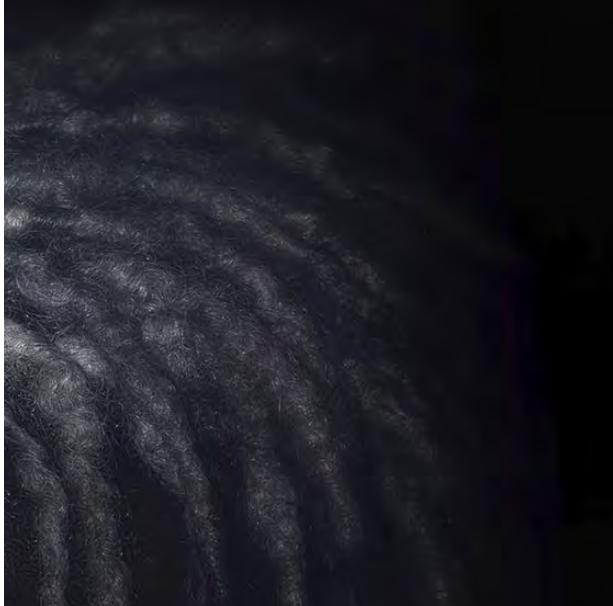


- 1 Green Room
- 2 Jennifer's Body
- 3 Fighting My Demons
- 4 Singapore (Ft. Destroy Lonely)
- 5 Lose It
- 6 Hardcore
- 7 Me N My Kup
- 8 It's Over
- 9 Succubus
- 10 Paranoid (Ft. Destroy Lonely)

- 11 Pots
- 12 Like This (Ft. Destroy Lonely & Lil Uzi Vert)
- 13 Overtime
- 14 Vampire Hour
- 15 Nightcore
- 16 Nightcore 2
- 17 Rockstar Lifestyle
- 18 i need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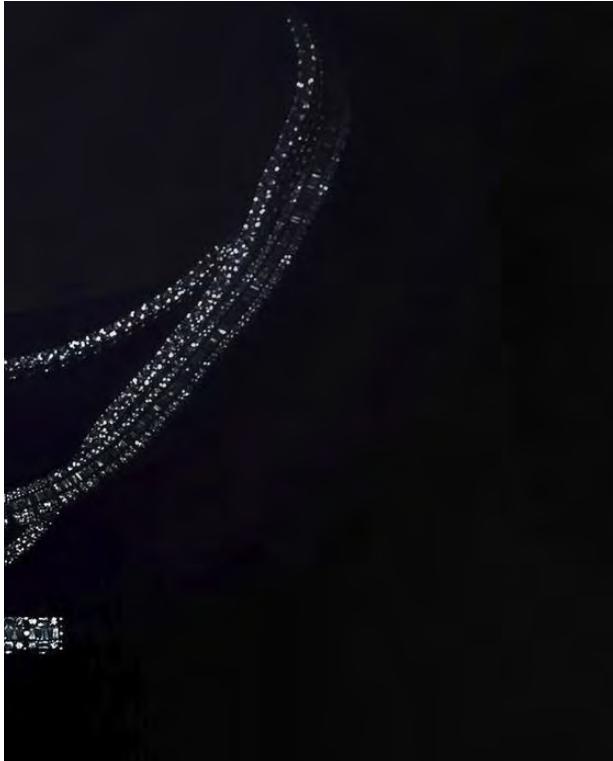
2023.10.13

레이지의 아버지 Playboi Carti의 3년간의 공백과 오피엄 (Opium) 사단의 연달은 흥행 부재로 레이지의 입지는 크게 흔들렸다. 여러 레이지 래퍼들의 실패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를 뽑자면 당연 지나친 자기복제식의 음악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똑같은 플로우, 좋게 말하면 독특하지만 형편없는 랩 실력, 귀에 많은 부담이 가는 날카로운 신디사이저등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심한 점은 매번 비슷한 사운드 구성을 뽑을 수 있었다. 급속도로 죽어가는 레이지씬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최우선으로 손봐야 할 것은 당연 진부한 사운드 구성이다. 켄 칼슨 (Ken Carson)은 앨범 <A Great Chaos>를 통해 진부한 사운드構成을 조금이나마 타파하고자 했으며 그러한 노력은 이 앨범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플레이보이 카티의 수많은 아류 중 Destroy Lonely, Homixid Gang 등이 있지만 이중 독보적인 존재는 켄 칼슨이다. 이들 모두 Playboi Carti의 음악 스타일을 토대로 발전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켄 칼슨은 위 언급된 이들보다 좀 더 자신의 음악을 개성 있게 이끌어 갔다. Playboi Carti의 아방가르드함과 무채색과 디스토션 된 사운드 역시 켄 칼슨의 음악에 기초적인 뼈대가 됐지만, 그 위에 살은 옛날 락밴드 정신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카티와 달리 켄 칼슨은 공포영화와 고어물, 특히 2000년대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거 같다. "Jennifer's Body"나 "Green Room"은 공포영화물을 대놓고 오마주를 하며 리릭시즘을 얻을 수 없는 레이지 앨범에서 소소한 재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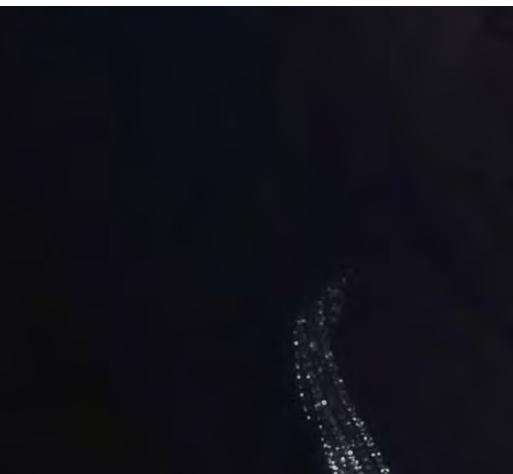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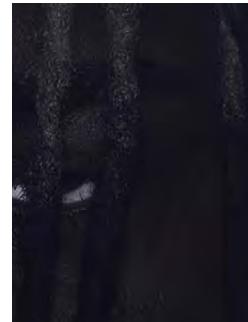
Destroy Lonely와 Homixid Gang이 일관된 플로우와 보컬로 지루함을 사는 것과 다르게, 플로우와 보컬을 곡마다 다르게 디스토션을 주어 차이점을 두었고, 피치의 높낮이를 각자 다르게 믹싱함으로써 지루함을 덜어주었다. 이 앨범의 가장 큰 특징은 애틀랜타 힙합, 즉 정통 트랩의 향을 오피엄식 레이지에 혼합했다는 점이다. "Hardcore"에선 전형적인 트랩 진행 방식을 가지며 Future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고, "Singapore"에선 수직으로 떨어지는 듯한 드럼 패턴을 삽입하여 Chief Keef의 <Finally Rich>가 생각나는 사운드를 구현하였다. 이외에도 강렬한 비트와 같이 뭉개지는 사운드가 주를 이루는데 랩과 보컬이 비트에 의해 뭉개지고 사운드가 주목받는 곡 구조를 가져옴으로써 레이지의 장점인 사운드를 강조시켜주는 것과 약점인 랩과 플로우를 약화시키는 것도 있다. 또 반복적인 고음의 시퀀스를 짧은 러닝타임에 가져옴으로써 한 번 더 사운드를 강조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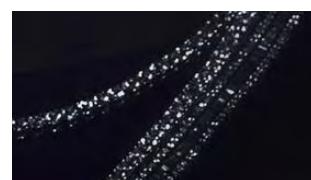
하이퍼 팝, 매탈, 애틀랜타 트랩 등 실험적인 사운드 아래 클리셰적인 사운드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실제로 "Jennifer's Body", "Nightcore 1&2", "i need u", "Singapore", "Hardcore"등은 나에게 있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원래 1시간 동안 비슷한 비트들도 계속 진행해서 피곤하고 지치는 감이 없진 않았지만, 세습적인 사운드를 깨고 나와 곡구조를 더 단순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단순화 아래 여러 실험적 장르들을 포괄하고자 한 게 보였다. 실제로 위에 언급된 실험적인 몇몇 곡들은 앨범을 즐기는 데 있어서 지루한 타이밍에 터닝포인트가 된 곡이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 줄줄이 호평만 써놨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앨범은 아니었다. 결국 Playboi Carti를 카피하는 오피엄식 사운드를 크게 벗어나진 못했으며 Playboi Carti의 수많은 아류 중 한 명이라는 이미지를 쉽사리 탈피하진 못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번 앨범을 통해 켄 칼슨이라는 아티스트가 레이지의 한줄기의 빛인 걸 보여줬으며, 과부하 된 레이지 장르에 새로운 가능성은 제시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앨범을 켄 칼슨이 마치 복싱 선수 Gervonta Davis와 같다고 생각하게 했으며 반대로 Playboi Carti는 Floyd Mayweather와 같다고 생각하게 했다. Floyd Mayweather가 Gervonta Davis의 스승이자 프로모터라 Gervonta Davis의 기본기와 기술들이 Floyd Mayweather로부터 오는 것처럼 켄 칼슨 또한 Playboi Carti의 스타일이 켄 칼슨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기술의 쓰임과 경기 운영적인 성향에서 서로 다른 것처럼, 켄 칼슨이 음악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과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제로 까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줬다.

마치 Gervonta Davis의 강한 펀치력에서 나오는 여러 K.O 경기처럼 켄 칼슨은 레이지 씬 안에서 수준급 프로듀싱 능력이 있고, 29승 무패를 달리고 있는 Gervonta Davis처럼 켄 칼슨 또한 오피움사단 안에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Playboi Carti 이후 그 왕관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는 것처럼 복싱계 또한 Floyd Mayweather를 이을 자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에이스들의 부재로 인한 복싱계와 레이지의 부진은 Gervonta Davis와 같은 켄 칼슨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HL**

# AND THEN YOU PRAY FOR ME

WESTSIDE  
GU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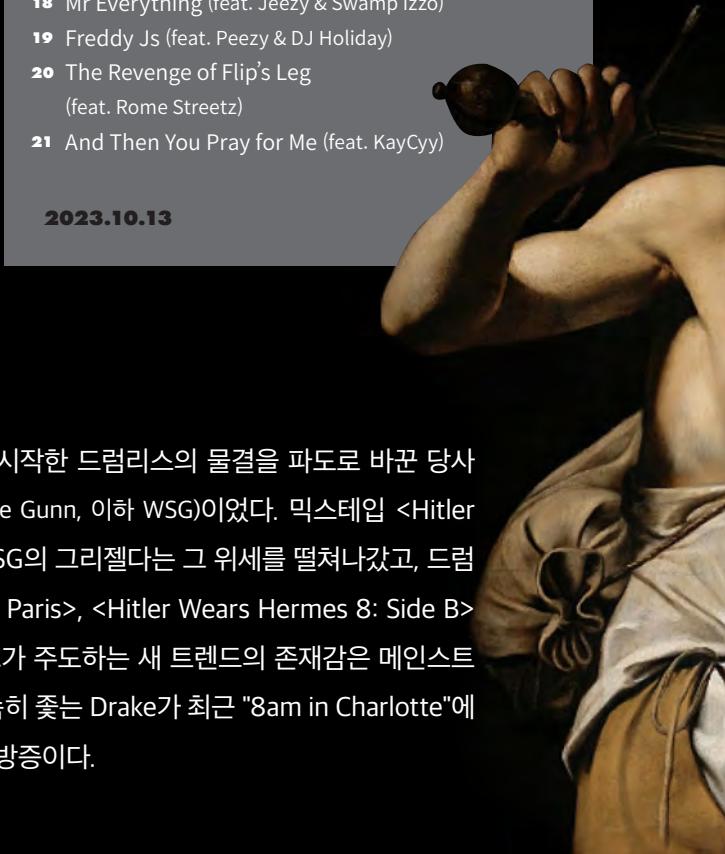
by 온암

2010년대 초반 Roc Marciano가 시작한, 길게는 1990년대 RZA가 시작한 드럼리스의 물결을 파도로 바꾼 당사자는 그리젤다 레코즈(Griselda Records)의 웨스트사이드 건(Westside Gunn, 이하 WSG)이었다. 믹스테입 <Hitler Wears Hermes> 시리즈와 컴필레이션 앨범 <WWCD>를 필두로 WSG의 그리젤다는 그 위세를 떨쳐나갔고, 드럼리스는 서서히 언더그라운드 씬을 지배해갔다. <Flygod>, <Pray for Paris>, <Hitler Wears Hermes 8: Side B> 등 쉬지 않고 수작들을 연성하며 씬의 선두에 선 웨스트사이드 건, 그가 주도하는 새 트렌드의 존재감은 메인스트림에서조차 감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유행을 누구보다 신속히 쫓는 Drake가 최근 "8am in Charlotte"에서 Conductor를 초빙해 드럼리스를 시도한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증이다.



- 1 Flygod Did (feat. AA Rashid)
- 2 Mamas Primetime (feat. JID & Conway the Machine)
- 3 Kostas (feat. Conway the Machine & Benny the Butcher)
- 4 1989 (feat. Stove God Cooks & DJ Drama)
- 5 Suicide in Selfridges (feat. DJ Drama)
- 6 Kitchen Lights (feat. Stove God Cooks)
- 7 Flygod 2X
- 8 Dunnhill (feat. Rick Ross)
- 9 House of Glory (feat. Stove God Cooks)
- 10 JD Wrist (feat. Stove God Cooks, Estee Nack, Trap-A-Holics & Westside Pootie)
- 11 Disgusting (feat. Giggs)
- 12 Trynna Kill You (feat. Ty Dolla \$ign)
- 13 LL Bool Gunn
- 14 Babylon Bis (feat. Stove God Cooks)
- 15 Ultra Grizelda (feat. Denzel Curry)
- 16 Jalen Rose (feat. Boldy James)
- 17 Steve and Jony (feat. EST Gee)
- 18 Mr Everything (feat. Jeezy & Swamp Izzo)
- 19 Freddy Js (feat. Peezy & DJ Holiday)
- 20 The Revenge of Flip's Leg (feat. Rome Streetz)
- 21 And Then You Pray for Me (feat. KayCyy)

2023.10.13



특히 WSG 본인이 최근 Travis Scott의 "LOST FOREVER"에 참여하며 대단한 존재감을 과시한 만큼, 메인스트림 리스너들을 통틀어서도 그의 신보에 대한 관심도는 역대 최고 수준임이 확실했다. 'Pray for Paris의 후속작', '마지막 스튜디오 앨범' 등 <And Then You Pray For Me>에 대한 수많은 수식어들이 그 기대감을 증폭시킬 때 즈음, 정작 앨범이 남긴 인상은 '당혹스러움'에 가깝다.

오프닝 트랙 "Mammas PrimeTime"이 전형적이지만 여전히 준수한 그리젤다의 색을 보여줬다면, 이어지는 "Kostas"는 테이 키스의 트랩 프로덕션으로 예상치 못한 충격을 선사한다. 그리고 앨범이 중반부를 넘어설 때, 그제서야 "Kostas"는 완성도라도 좋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본작에서 인트로와 아웃트로를 제외한 19개의 트랙 중 무려 10개가 트랩 넘버일 만큼이나 <And Then You Pray For Me>는 전작인 <Pray for Paris>의 순수한 드럼리스와는 거리가 멀다. 커리어 최고의 앨범이 될 것이라는 WSG의 호언장담과 다르게, 완성도마저도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꾸준히 양질의 작품만을 배출했던 웨스트사이드 건이 어째서 이토록 의아함만을 남기는 앨범을 발표한 것일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사뭇 달라진 프로듀서들의 목록이다. Beat Butcha, Conductor Williams, Daringer 등 그리젤다의 빛나는 순간들을 함께 했던 이들의 이름은 고작 한 두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대신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한다. 유명 멤피스-트랩 프로듀서인 Tay Keith가 참여했으나, 고작 두 곡밖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대체로 결과물이 좋은 편이다. 결국 화살촉은 가장 잊게 등장한 이름인 Miguel da Plug를 향한다. 그의 열약한 비트들은 본작의 패착 요인이 'WSG 이 트랩을 시도함이 아닌, WSG이 단순히 트랩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든다. 비단 전작의 프로듀서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웨스트사이드 건의 음악색에 대한 그 어떤 배려조차 느껴지지 않는 무색무취한 트랩 비트들은 앨범에 대한 흥미도를 심히 축소한다. 물론 WSG의 아들인 Flygod Jr.가 프로듀싱한 'JD Wrist'는 음악 스타일, 믹싱 상태, 벌스, 길이까지 의심의 여지 없이 앨범 최악의 트랙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앨범의 완성도를 저해한 것은 WSG 본인의 감독이었다. 본래 그가 지닌 최고의 장점은 프로덕션을 구성하는 능력이었다. 그의 산하에 있는 프로듀서들의 작업물 중 양질의 비트를 선별하고 앨범의 전체적인 톤을 구성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웨스트사이드 건이 레코즈 내에서 압도적인 다작을 하고도 유난히 고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며, Benny와 Conway 등 내로라하는 멤버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젤다 스타일'의 대표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임이 틀림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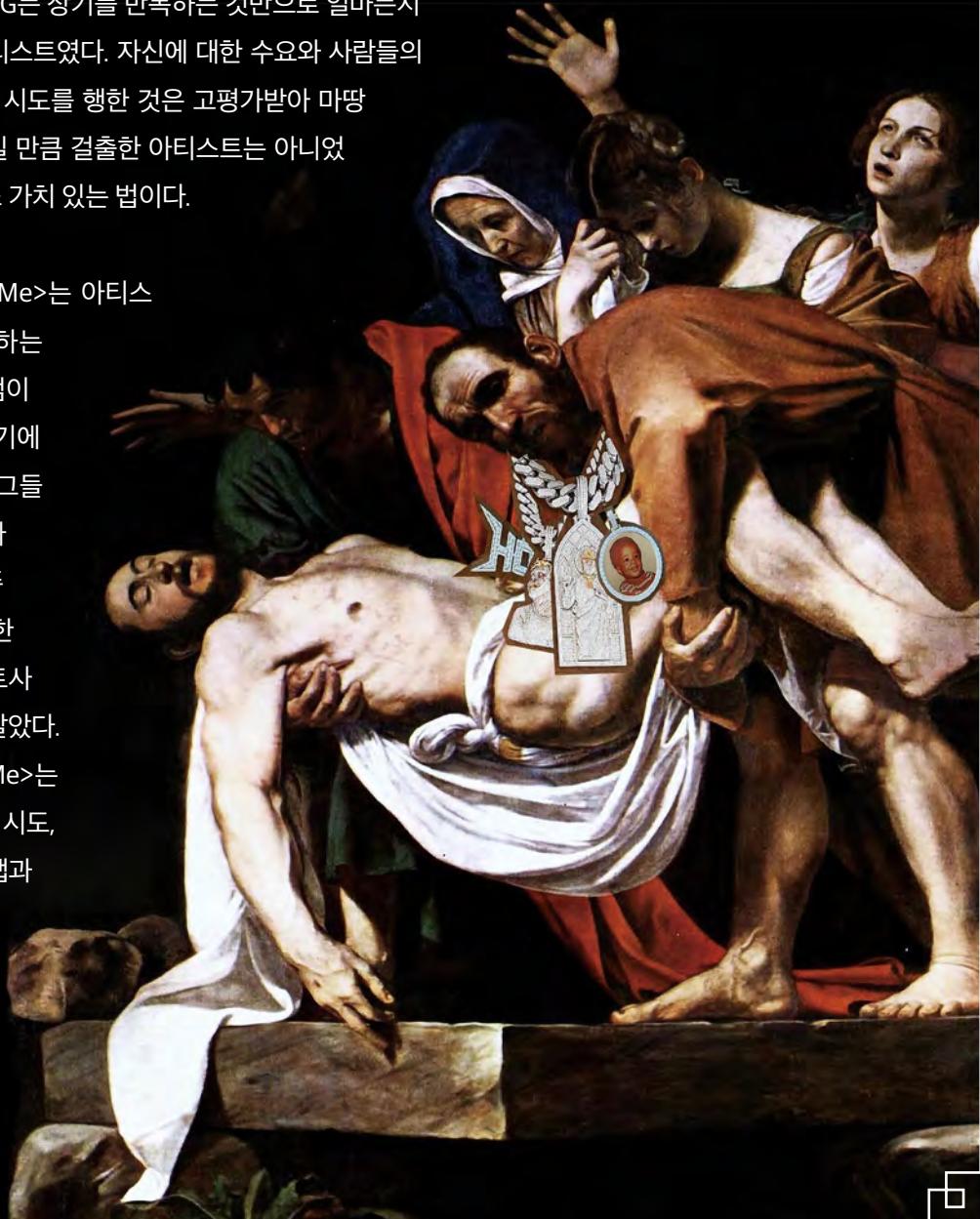
그렇기에 그런 그가 이토록이나 비유기적인 음반을 제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블랙 트랙들과 트랩 트랙들의 배치는 과하게 산만하며, 21개의 트랙이라는 볼륨에서 수준 이하의 곡들이 집중력을 저하시킨다. RZA가 프로듀싱한 "House of GLORY"와 Denzel Curry가 참여한 "Ultra Grizelda"의 존재가 지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여운이 크지 않은 이유이다. 그가 DJ Drama, Rick Ross, Jeezy 같은 2000년대의 인사들을 초빙한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듯, WSG는 본작에서 믹스테입의 향수를 일부 재현하려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허나 그가 지금껏

보여주었던 음악은 그때의 음악들관 사뭇 다르고, 실제 결과물 또한 딱히 2000년대의 그것을 연상시키지 않는다. 웨스트사이트 건은 Tyler, The Creator가 아니고, <And Then You Pray For Me>는 <CALL ME IF YOU GET LOST>가 될 수 없다.

방향 설정에 대한 실책 때문인지, WSG의 랩도 전과 달리 유난히 힘이 빠진다. 사실 리릭시스트로서 맹위를 떨친 동료들과 달리 WSG이 순수히 랩 스킬만으로 호평받는 이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가장 귀에 띠는 하이톤의 보컬에 독특한 추임새까지, WSG은 그 존재감만으로 샘플 리프가 강조된 드럼리스 비트를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트랩 비트에선 이야기가 달라진다. 드럼리스에 드럼이 결여되었다고 한들 엄연히 속도는 존재하기에, 블랙에서 트랩으로 이동한 WSG의 플로우 또한 상대적으로 더뎌진다. 그의 일직선적인 발성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의 최저점을 초과함과 동시에, WSG의 기술적인 면모와 트랩 비트의 장르적 특징이 상충하는 것이다. 앞선 프로덕션의 실책과 더불어, "FLYGOD 2x"에서 Tyler가 랩의 영감으로 WSG을 지목한 스킷이 삽입된 순간이 더없이 우스꽝스러워지는 이유이다.

한층 더 어이없는 것은, 그의 본래 스타일이 돋보이는 곡들은 여전히 좋다는 것이다. "Mamas PrimeTime"은 그리젤다 타입의 삭막한 비트에 J.I.D의 탄력적인 피쳐링이 금상첨화처럼 올려진 오프닝이었고, Daringer와 Conductor가 프로듀싱한 곡들은 여전한 풍미를 자랑한다. 바로크 참고가 돋보이는 "KITCHEN LIGHTS"은 단연코 WSG의 최고 곡 중 하나이며, 그 웅장함은 드럼리스에서 추구할 수 있는 고고함의 한계와 같다. 그렇기에 더욱 아쉽다. WSG는 장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아티스트였다. 자신에 대한 수요와 사람들의 기대를 등지면서 까지 새로운 시도를 행한 것은 고평가받아 마땅 하나, 그는 그 시도를 성공시킬 만큼 걸출한 아티스트는 아니었다. 시도는 성공했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법이다.

<And Then You Pray For Me>는 아티스트로서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앨범이었다. 음반 하나의 실패는 거기에서 그치지만, 이번엔 시류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그리젤다의 스타일이 마침내 제대로 주목받으려는 순간, 가장 중요한 임무를 도맡아야 했던 웨스트사이드 건은 모든 것을 망치고 말았다. <And Then You Pray For Me>는 아티스트 본인에겐 의미 있는 시도, 한 음반으로선 평작 정도, 블랙과 드럼리스 힙합에겐 참사이다. **KHL**



# LAHAI SAMPHA

FULL  
LENGTH  
REVIEW

5

by 앞날

<Lahai>의 제목은 샘파 라하이 시세이(Sampha Lahai Sisay)의 미들네임이자 할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왔다. 전작 <Process>를 낸 뒤, 6년 간 그는 삶의 파편들을 지나 사랑하는 와이프와 딸을 둔 가장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Stormzy, Alicia Key, Kendrick Lamar의 앨범에서 피쳐링 내지 앨범의 참여를 통해 굵직한 흔적을 남기기도 하나, 그보다도 개인적인 일화에 집중해 보면, 기나긴 코로나 시국은 그에게 일련의 시련이 아닌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

을 터득하기 위한 수련에 가까웠던 것만 같다. 마치 어느 부부의 아들이었던 샘파 역시 득녀하게 되어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은 동요 대신에 사랑을 주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의 부모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샘파를 바라보듯, 그 역시도 딸을 바라보는 마음을 깨달았을까. 그런 맥락을 통해 생각한다면

<Process>를 지난 샘파의 모습은 <Lahai>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알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다. 본 앨범 <Lahai>는 단편적인 과정(process)을 지나 그의 이름을 찾고 부여할 시공간을 찾는 여정이니 말이다.

위 시점에서 보자면 <Process>와 <Lahai>는 완전하게 다른 앨범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크게는 앨범의 이야기거리와 사운드의 질감부터, 작게는 R&B와 일렉트로



닉 사이의 알 수 없는 부유감까지 말이다. 만약 <Lahai>에서 <Process>의 과격한 일렉트로닉 리듬 사이로 위태로운 감정선을 탐구했던 그의 모습을 기대했다면 살짝은 실망할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샘파의 음악성이나 탐구심이 줄어든 방향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음악적 방향성이 바뀌는 동시에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진취적인 음악성과 탐구심이 돋보인다. 이는 자아의 치열한 고뇌와 번민에서 공동체의 유대로 향하는 과정, 즉 개인의 입장 전환에서 기인했다고 보는데, 타인에 대한 다소 과격한 시간적 투사로부터 유대감을 기준으로 한 시공간적 입장으로의 전환 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꽤 설득력 있는 결과물 <Lahai>를 일궈냈기 때문이다.

<Lahai>의 여정은 영겁의 시간 속에서 갈등과 바라보며 어느 지향점을 찾는 데에서 시작한다. "Stereo Colour Cloud (Shaman's Dream)"의 시작 역시 시간과 사랑을 영적인 관심으로 탐구하며, "Spirit 2.0"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사랑과 영혼 그리고 시간과 믿음을 통한 연결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뿐인가, 앨범 곳곳에 등장하는 갈매기의 출처인 리처드 바크(Richard Bach)의 "Jonathan L. Seagull(갈매기의 꿈)" 인용을 통해 갈매기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이에 따른 두려움에도 긍정적 수용의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샘파의 여정은 "Dancing Circles"처럼 세상의 풍파를 잊고 춤추기도 하나, "Suspended"처럼 너무나 깊게 빠졌던 사랑과 현실의 고리 속에 갈등하기도 한다. "Satellite Business"에서 "Inclination Compass (Tenderness)" 변화 역시 재밌다. 시작이 무의미함을 느끼면서도 그 무의미함을 탐구하기 위해 직접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존재하는 반면, 그 속에서 발견한 진정성은 "Only"에서 "오직 당신"이라는 한 마디로 압축되었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샘파 본인도 돌아가기에는 멀리 왔음을 인지했지만, 수많은 역경에도 스스로 이룬 것들도 많았음을 안다. 바로 멈출 수 없는 시간에도 사랑을 통해 얻어낸 딸의 존재, 가족이란

공동체의 결실이 대표적이다. 특히나 마지막 곡 "Rose Tint"에서는 세상의 상처와 풍파 속에서 길을 잃었으며, 여전한 역경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지만, 그의 연료는 사진 한컷을 위해 쓴다고 하는 마지막 장면은 사뭇 다른 감상을 준다. 아마 그도 매개체,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를 찾은 것이며 나름의 치유 혹은 희망의 지향점을 찾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위의 서사만을 본다면 딸의 존재와 그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온다는 것도 사실이나,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6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부성애 내지 가족애로서 본작의 대표 주제로 맡는 것은 아니다. 물론 주요한 해답은 가족애에서 얻었으나, 더 나아간 자아의 탐구, 공동체의 결속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 태도가 주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Process>에서 해결되지 못한 물음은 여전히 미제로 남으나 문제의 수용 방식은 한층 더 긍정적이고 편안한 인상을 준다. 리처드 바크의 우화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은유와 최면을 거는 듯한 가사들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바로 <Process>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하모니와 레이어를 강조한 리듬을 통해 삶의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전



보다 영적이며 낙천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여전히 시간과 영적인 불가 향력적 흐름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성의 날개로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새로운 영역의 긍정적 탐구이자 극복의 방식으로도 볼 수 있겠다. 결국은 시간과 비행, 영적 탐구심, 사랑과 극복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이로 하여금 부드러운 보컬과 피아노와 신디사이저의 레이어링을 통해 드러나 새로운 부양감의 공간, 샘파가 그렸던 지향점으로 전이시킬지도 모를 일이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샘파에게 가장 돋보이는 장점은 역시 피아노를 다루는 방식이다. 전작의 '(No One Knows Me) Like The Piano'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이 피아노만큼 그를 잘 아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Lahai>만의 독특한 특색은 존재하는데, 사운드를 쌓아가는 방식과 흐름의 주도에 있다. 당장 'Dancing Circles'를 보자. 단순한 피아노 건반 리듬의 반복, 새로운 피아노의 리듬과 신디음의 도입, 그리고 샘파의 치밀한 보컬까지, 이 모든 것을 피아노라는 악기 하나와 보컬로 이를 수 있다면 믿을 것인가? 그가 단순히 영국 출신이기에, UK 베이스와 개러지 사운드의 이해도가 우연히 뛰어났고 거기에 피아노와 R&B 사운드를 적절히 접목할 수 있다는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Lahai>의 골자는 피아노의 선율이 더욱 주류를 차지한다는 점이 있겠으나 그사이에는 치밀하게 수놓은 백 보컬과 드럼 앤 베이스, 신디 사운드 그리고 아름다운 비유로 그려놓은 샘파의 목소리가 버젓이 자리 잡았다.

또, 앨범의 조율에는 <Process>에서 보여준 잔혹한 집착 혹은 자기 투사가 아닌 <Lahai>의 사랑의 확장과 더욱 발전한 음악성이 기여했으며, 그 방식은 낙천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느 단어로 딱 잘라서 말하기 힘든 영적인 공간상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결국 전작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자 가장 돋보이는 매력이 된 것이다.

구구절절 <Lahai>에 대해 옮겨 놓았으나, <Process>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샘파의 성장한 모습에 있다. 사랑을 갈구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가 그려진 작품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샘파에게 라하이라는 이름을 주었듯이, 샘파 본인이 딸에게 이름을 남기며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Lahai>는 시공간적으로도 현재진행형의 작품이다. 본작의 다음 장은 갈매기가 바라보는 목적지에 달린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이 바로 딸과 본인의 가능성이 아닐까. **KH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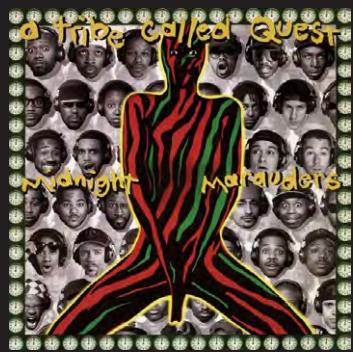
- 1 Stereo Color Cloud (Shaman's Dream)
- 2 Spirit 2.0
- 3 Dancing Circles
- 4 Suspended
- 5 Satellite Business
- 6 Jonathan L. Seagull
- 7 Inclination Compass (Tenderness)
- 8 Only
- 9 Time Piece
- 10 Can't Go Back
- 11 Evidence
- 12 Wave Therapy
- 13 What If You Hypnotise Me? (Ft. Léa Sen)
- 14 Rose Tint

2023.10.20

---

# CLASSIC REVIEW

---



큐팁(Q-Tip)과 어 트라이브 콜드 퀘스트(A Tribe Called Quest, 이하 ATCQ)의 여정은 과거에 대한 연속적인 초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People's Instinctive Travels and the Paths of Rhythm>은 그들에게 소포모어 징크스적 과제를 제기했고, <The Low End Theory>는 그보다 더 나을 수 없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그 답변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또 다른 장벽이 되었고, 동시에 서부의 한 천재에게 <The Chronic>이라는 걸작을 창작케 하는 영감이 되었다. 이제 ATCQ는 명반 2개 분의 존재감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만큼 걸출한 음반을 제작해야 했다.

파이프 독(Phife Dawg)의 할머니 집 지하실에 장비를 설치하고 작업에 착수한 ATCQ는 <The Low End Theory>의 성공이 주는 압박감으로부터 더 빠르게 도주하며 새로운 시도를 해내갔다. 큐팁의 총괄 하에 파이프 독은 재치 있는 운율들을 떠올렸고, 알리 샤히드 무하마드(Ali Shaheed Muhammad)는 곡들의 윤곽을 갖췄다. 더 다양한 샘플들이 동원되었고, 더 많은 음악가들의 지원과 함께 본작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갔다.

<Midnight Marauders>의 음악은 'ATCQ'를 연상할 때 나타나는 이미지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변화 혹은 발전된 요소들이 돋보인다. 가장 먼저 큐팁의 실험에 힘입은 드럼이다. 재즈 드럼을 힙합의 것으로 치환해 앨범 전체에 탄력적인 긴장감을 조성한 전작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량감은 줄어들었지만, 드럼 샘플에 대한 질감 면에서는 분명 진일보했다. 큐팁은 드럼 샘플의 파형을 다채롭게 조정하며 적절한 음량 선에서 스네어가 선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쾌함을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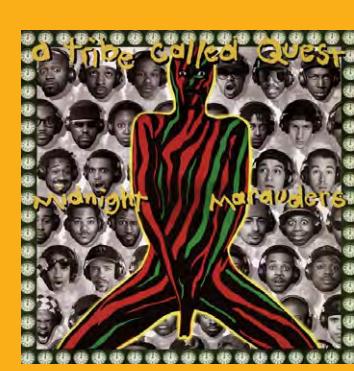


샘플링 또한 더 능숙해졌다. 전작이 금속성의 담백한 재즈 힙합 음반이었다면, 본작은 좀 더 선율적이고 활기찬 분위기가 강조된다. 확연히 더 쉽고 더 대중적이다. 전작에도 거의 필수적일 만큼 찾게 샘플링된 베이스와 드럼 샘플이 ATCQ 특유의 리듬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주축으로 설정되는 메인 멜로디 샘플과 토픽처럼 배치되는 악기 샘플들이 프로덕션의 수준을 한 차원 상향시킨다. Weldon Irvine의 "We Gettin' Down"을 필두로 총 5개의 샘플이 사용된 히트 싱글 "Award Tour"와 Ronnie Foster의 "Mystic Brew"를 샘플링한 불후의 명곡 "Electric Relaxation"이 대표적이다.



순수히 랩 음반으로서 <The Low End Theory>만한 랩 스킬이나 듀오 래핑 체제의 충격을 안기진 않지만, <Midnight Marauders>의 랩 퍼포먼스 역시 흡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 큐팅과 파이프 독 특유의 지적이고 광활한 어휘 사용, 극히 낮은 욕설의 빈도에 대비되는 유머와 재치로 넘치는 비유까지 ATCQ는 최상의 플로우로 랩의 발전에 분명히 기여했다. 단순 워드플레이뿐이 아니다. 생생한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8 Million Stories", 'N word'의 의미를 환기하는 "Sucka Nigga" 등 팁과 파이프의 리릭시즘이 그 영역을 더욱 넓혀갔다.

힙합의 미학은 반복에 있었고, ATCQ는 그것을 충실히 준수하면서도 랩 음악에 멜로디와 지성을 새로이 부여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개척해나갈 수 있는 실험정신이야말로, 훗날 그들의 영향을 받은 Kendrick Lamar나 J.I.D가 그러했듯이 트릴로지 징크스를 돌파하고 커리어 최고작으로 평가받을 만한 음반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비록 당시 대중들에 의해 충분한 조명은 받지 못해 주류가 되지 못했다지만, ATCQ와 <Midnight Marauders>의 본질은 고작 한 시적인 인기에 지나지 않았다. 시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구히 클래식으로 기록되며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품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체 음악(Alternative Music)의 가치일 것이다. **KHL**



- 1 Midnight Marauders Tour Guide
- 2 Steve Biko (Stir it Up)
- 3 Award Tour (Ft. Trugoy the Dove)
- 4 8 Million Stories
- 5 Sucka Nigga
- 6 Midnight (Ft. Raphael Saadiq)
- 7 We Can Get Down
- 8 Electric Relaxation
- 9 Clap Your Hands
- 10 Oh My God (Ft. Busta Rhymes)

- 11 Keep It Rollin' (Ft. Large Professor)
- 12 The Chase, Part II
- 13 Lyrics to Go
- 14 God Lives Through

**1993.11.09**

# ENTER THE WU-TANG 36 CHAMBERS

## WU-TANG CLAN

by 앞날

만약 힙합, 랩 음악에 입문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마주칠 앨범이 몇 장 있겠으나, 이제부터 소개할 앨범은 그들 중에서도 탑 텐을 넘어 탑 파이브 안에 들어갈 정도의 힙합 역사 안에서는 손에 꼽을 작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 당시 한창 유행하던 서부의 G-Funk의 대항마로 등장해 뉴욕의 하드코어 힙합의 기초를 정립하고, Public Enemy와 Beastie Boys로 대표되는 맥시멀한 동부의 프로덕션을 ATCQ와 함께 미니멀리즘의 프로덕션을 자랑하는 로파이하며 아이코닉한 비트, 그리고 래퍼 Rakim의 라임 테크닉을 훌륭하게 이어받은 개성 넘치는 랩이 자리 잡은 이 앨범은 바로 우탱 클랜(Wu-Tang Clan)의 <Enter The Wu-Tang (36 Chambers)>이다.





본 앨범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후대 힙합 아티스트를 위한 지침서 내지 교본으로 인정될 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띠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9명의 래퍼가 각기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무당파라는 이름에 걸맞은 컨셉 아래에 조화를 이루며, 프로듀싱을 전담한 르자(RZA)의 방향성 또한 투박할지언정 날카롭기 그지없으니 말이다. 그야말로 랩이면 랩 비트면 비트인 힙합 앨범의 명반 공식을 쉽게 궤적하는 그 구성이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구성품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 앨범이 오늘날에도 계속 리스너들의 플레이리스트 속에 자리 잡은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우선 가장 인상적인 르자의 프로듀싱부터 보자. 그의 혁신적인 프로듀싱은 본인을 포함한 9명의 래퍼의 훌륭한 무대를 마련해주었다. 치밀하게 직접 조합한 무대의 장치들을 보고 있노라면, 열악했던 그들의 환경에 반비례한 무궁무진한 비트 설계도가 놀라울 따름이다. 여기저기서 떼온 드럼과 베이스 샘플, 배경으로 들리는 현악기 소스, 컨셉을 확고히 지켜주는 중국 무림 영화의 사운드마저 모두 노리고 만든 그 치밀함과 의도성의 출처가 르자 단 한 명의 뇌 속이라는 것이 놀라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르자의 진두지휘 아래에서 무당파에서 따온 그룹 이름과 쿵푸 영화에서 따온 앨범 이름의 설득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비트 사이에 영화 샘플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 무겁고 둔탁한 드럼, 거친 베이스, 음산한 현악기 소리가 랩을 만나며 뛰어난 결정체를 조성하기까지의 행위는 당시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니 말이다. 덕분에 한 곳으로 엉클어진 하드코어 사운드가 앨범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려 주며 자칫 우스울 수 있는 래퍼들의 가사들 역시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환경과 스타일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고 랩이 모자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비트 위의 래들은 비트 혹은 컨셉에 부합하듯 관련된 무림 영화와 관련된 가사, 욕설, 칼싸움, 총격전 등의 폭력적인 가사들을 자랑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저 폭력으로 낭자한 거리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들 역시 그들의 삶이자 양식임을 고발하듯 보여준다는 점이 유효하다. 불우한 환경 덕분에 그들은 다소 분노에 차거나 공격적인 랩을 자랑하는데, 그 모습조차 각자의 개성과 컨셉에 맞게 드러난다는 점도 인상 깊기만 하다. 결국 그들의 랩 무공은 오늘날에도 매우 날렵하게 먹히며, 이를 이루는 군더더기 없는 라이밍의 초식 역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멤버들의 랩 역시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 훌륭한 첫 시작을 알리는 곡 "Bring Da Ruckus"에서 고스트페이스 킬라(Ghostface Killah)의 귀를 깨뚫는 예리한 하이톤의 벌스와 즈자(GZA)의 솔로곡 "Clan In Da Front"에서 보여준 군더더기 없는 벌스가 있다면, 올 더티 바스터드(Ol' Dirty Bastard)의 정신없는 취권을 자랑하는 벌스도 존재한다. 메소드 맨(Method Man)의 허스키한 보이스를 자랑하는 솔로 곡 "Method Man"에서는 본인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매력을 보여주며, 힙합 역사상 훌륭한 곡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C.R.E.A.M." 중 래원(Raekwon)과 인스펙타 덱(Inspectah Deck)의 벌스는 따로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그런가 하면 당시 객원으로 참가한 마스타 킬라(Masta Killa)는 "Da Mystery of Chessboxin'" 중 마지막 벌스를 맡아 멤버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랩을 남기었다. 유갓(U-God) 역시 묵직한 저음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했으며, 마지막 르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랩도 앨범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만약 이 모든 설명에도 그 느낌을 파악하기 힘들다면 마스타 킬라를 제외한 전원이 참여한 "Protect Ya Neck"를 보다 집중해서 들어보자. 반드시 개개인의 개성이 각자의 내공 아래에 만개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올해 우탱 클랜의 데뷔 앨범은 30주년을 맞이하며 여전히 클래식의 자리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론 클래식인 이유를 기억할 이유조차 점점 잊히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결과적으로 우탱 클랜의 데뷔 앨범이 중요한 이유는 강렬했던 데뷔 외에도 힙합이란 음악을 다시 'MC'의 중심으로 끌고 왔다는 것이다. 르자의 혁명적인 샘플링과 프로덕션, 다양한 개성파 스타일이 돋보이는 랩은 분명 동부 힙합 내 하드코어 힙합이라는 새로운 판도를 초래했다. 그것은 단순히 대중이 좋아할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설득함과 동시에 각 MC들의 마니아가 좋아할 음악을 만들었다는 점이 유효하게 먹혔다는 것이다. 오늘날에 수많은 MC가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 이야기하는 것도, 근래에 등장한 드럼리스 힙합의 부흥도, 영상물 샘플을 활용하는 기법도, 작든 크든 이 앨범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분명 확신할 수 있다. 결국은 우탱 클랜의 <Enter The Wu-Tang (36 Chambers)>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래퍼들의 귀감이 되는 클래식으로 남았음을 지금까지의 역사로 확인했고, 아마 먼 미래에도 그러리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HL**



- 1 Bring da Ruckus
- 2 Shame on a Nigga
- 3 Clan in da Front
- 4 Wu-Tang: 7th Chamber
- 5 Can It Be All So Simple / Intermission
- 6 Protect Ya Neck
- 7 Da Mystery of Chessboxin'
- 8 Wu-Tang Clan Ain't Nuthing ta Fuck Wit

- 9 C.R.E.A.M.
- 10 Method Man
- 11 Tearz
- 12 Wu-Tang: 7th Chamber - Pt. II
- 13 Conclusion

1993.1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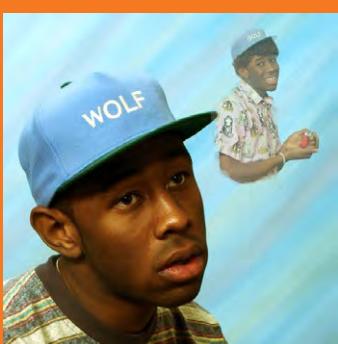
# WOLF

## Tyler, the Creator

by Indie Aisle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의 근작들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운드적 측면의 공통분모는 네오 소울을 활용한 감정적 무드의 밸로라고 할 수 있다. <Flower Boy>의 따뜻한 감정과 <IGOR>의 차가운 서정성, <Call Me If You Get Lost>의 산뜻한 화창함은 신스эм과 사이키델릭으로 예리하게 빛어낸 실험적 소울의 산물이라는 이야기다. Gregory Ferrand, Eric White 등을 기용한 초현실 유화의 앨범 커버가 제시하듯, 일련의 음악들은 명확한 공간 연출과 시각적 이미지를 담아 입체적 미학을 표구해냈다. 타일러가 차마 해아리기 힘들 만큼의 장르들을 혼용해 자신만의 구획을 창조한 까닭 역시도, 분명 그러한 자의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했기 때문임이 자명하다.

그리고 <Wolf>는 이러한 타일러식 소울 활용의 선형적 지표를 제시한 대표적 아트워크다. <Cherry Bomb> 이전에, 엉성하고 무질서한 대안의 <CMYGL>을 관람하는 느낌마저 드는 이 앨범은 분명 이후의 경로를 설정해두는 시행착오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호러코어 시절의 무질서함과 이후의 따스함이 격렬히 혼용된 <Wolf>는 타일러만의 자유분방함과 음악적 호기심들을 담고, 그 스스로 철저히 분화한다. 앨범 내에 <Cherry Bomb>의 과한 사운드 소스와 <Flower Boy>의 온난한 센슈얼함이 관찰되면서도, <Goblin>의 휘휘한 저녁 공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이다.



1993.11.09

- 1 WOLF
- 2 Jamba (Ft. Hodgy)
- 3 Cowboy
- 4 Awkward
- 5 Domo23
- 6 Answer
- 7 Slater (Ft. Frank Ocean)
- 8 48
- 9 Colossus
- 10 PartyIsntOver/Campfire/Bimmer  
(Ft. Frank Ocean & Lætitia Sadier)
- 11 IFHY (Ft. Pharrell Williams)
- 12 Pigs

- 13 Parking Lot  
(Ft. Casey Veggies & Mike G)
- 14 Rusty  
(Ft. Domo Genesis & Earl Sweatshirt)
- 15 Trashwang (Ft. Jasper Dolphin, L-Boy, Lee Spielman, Left Brain, Lucas Vercetti, Na'kel Smith & Travis Bennett)
- 16 Treehome95  
(Ft. Coco O. & Erykah Badu)
- 17 Tamale
- 18 Lone

따라서 <WOLF>는 확연한 분기점을 생성한다. <Goblin> 속 위드플레이나 경박한 메타포의 기조는 그대로 가지고 가되, 소울화성의 적극적 도입과 자유분방한 드럼 라인으로 캘리포니아의 녹음 드리운 공터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Wolf"와 "Awkward", "Rusty"처럼 평화로운 조성이 있다면 "IFHY", "Female" 같은 스크래치의 활달함 또한 있다. <Goblin>의 호러코어 기조와 괴상한 음계는 "Domo23" 등 소수의 트랙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Wolf>는 타일러가 바라보았던 N.E.R.D.의 초상을 가장 유감없이 나타낸 음악 군집 같다. DIY 정신의 팬보이였던 타일러가, 동경하던 이들의 자취에 한 발 다가선 것이다. 그리고 때로 그런 사실은 "Answer" "Treehome95"과 같은 서정적 선율 없이도 청자의 감정을 포근하게 덮어두는 도구로써 피력되기도 한다. <Wolf>가 무질서한 창의력과 자유분방함보다도, 아름다운 소년미로써 기억되는 이유이다.

물론 그 무질서 덕택에 유기성과 통일성을 상당히 상실했지만, <Wolf>는 그 불안정한 난잡함마저 매력으로 정립한다. 대부분의 청자들이 동의할 사실이기도 하지만, 타일러가 <Goblin>의 음산한 사운드 소스보단 <Wolf>의 활달함에 더욱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라는 사실도 한 몫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침내 타일러가 '네오 소울'의 방법론을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Wolf>의 모호함에 의문부호를 표할지언정, 타일러의 커리어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앨범이 거부할 수 없는 반가움으로 표구될 진정한 까닭이다.

우리가 타일러를 사랑했던 이유는 특유의 자유분방한 음악 덕분이었지만, 그 음악에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순간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 그의 음악을 사랑하게 되는 것만 같다. <Wolf>만의 그 따스한 분위기가 이전보다 그를 대단한 존재로 발돋움시키게 된 것도 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CMYGL>까지 도달한 타일러를 보자면 <Wolf>는 더욱 애恸하기만 하다. 그저 타일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내게는, <Wolf>가 그의 모든 세계의 출발점이자 회귀점으로 느껴질 뿐이다. **KHL**



# FREE TOPIC

힙합과  
영화의  
유기적  
역사

힙합과 영화 1부

900 단어로 쓰는  
오션과 햄번의  
**MOON RIVER**  
스냅숏

나고, 칸예, 퍼렐  
그리고 스캇

# 힙합과 영화의 유기적 역사

힙합과 영화 1부

by 온암



1973년에 탄생한 힙합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세상에 늦게 난 것을 자조하기라도 하는 듯, 힙합의 인기와 영향력은 모든 음악 관련 장르 중에서도 유독 폭발적이었다. 물론 음악과 떼놓을 수 없는 영화계의 경우 또한 예외는 아니다. 1983년 최초의 힙합 영화로 인정받는 *<Wild Style>*이 개봉된 이후 힙합은 줄곧 영화와 밀월 관계를 유지해왔다. 수많은 힙합 트랙들이 영화의 오리지널 스코어로서 사용되었고, 연기의 재능을 타고 난 소수의 래퍼들은 배우로서의 변화를 시도했다. Ice Cube와 Common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배우가 된 래퍼라 하면 2Pac을 제할 수 없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배우로서 활동하며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꽂피웠던 그는 힙합 역사에서 중요한 영화로 평가받는 *<Juice>*와 Janet Jackson과 출연한 *<Poetic Justice>*에서 주연으로 활동하며 연기자로서의 커리어를 키워갔다. 그에게 연기자로서의 활동은 음악가로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철학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다. 그 중 *<Juice>*의 OST로 참여한 Eric B. & Rakim은 "Juice (Know The Ledge)"로 또 하나의 대표곡을 배출했다. 재미있는 것은 2Pac의 라이벌인 Biggie의 커리어 또한 영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데뷔 싱글 "Party And Bullshit"은 코미디 영화 *<Who's The Man>*에 OST로 사용되었고, 또한 흑인 민권 영화 *<Panther>*의 OST 'Points'에 Coolio, Redman, Busta Rhymes, Bone Thugs-n-Harmony와 함께 참여해 전설적인 단체곡을 남겼다.

1990년대는 힙합이 음악적으로 가장 꽂힌 시기이기에 '골든 에라(황금기)'라고 불린다. 그리고 분명 힙합 영화에게도 황금기였다. Dr. Dre와 Snoop Dogg을 필두로 한 데스 로우 레코즈는 Snoop의 동명 곡 "Murder Was The Case"에서 영감을 받아 1994년 18분 길이의 단편 영화 *<Murder Was The Case>*를 제작했다. 호러코어 갠스터 장르인 본작은 갠스터 Snoop이 악마의 힘을 빌어 부활하는 내용의 스릴러를 표방하며, "Murder Was The Case"와 "Natural Born Killaz" 등 히트 싱글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전설적인 공연 실황을 담은 Russell Simmons의 다큐멘터리 영화 *<The Show>*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Run-D.M.C., Wu-Tang Clan, The Notorious B.I.G., Snoop Dogg, Warren G 등 당시 신인이었던 전설들의 필라델피아 공연 실황과 유명 힙합 아티스트들의 인터뷰를 담은 본작은 힙합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영상 자료임과 더불어 최고의 힙합 오리지널 스코어를 포함하고 있다.

래퍼의 실제 삶을 모티브로 삼은 힙합 영화들은 수도 없이 많다. <Notorious>, <Get Rich Or Die Tryin'>, <All Eyez On Me> 등 유명한 작품들이 존재하지만 역시 딱 하나만 꼽으라면 <8 Mile>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Eminem의 실제 언더그라운드 시절 삶을 일부 각색한 영화는 Eminem 본인이 주인공 'B-Rabbit'으로 분했으며, 지금은 고인이 된 Brittany Murphy가 여주인공,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팔콘 역으로 유명한 Anthony Mackie가 반동인물을 맡았다. 작품 후반부의 프리스타일 배틀은 힙합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본 경험이 있는 전설적인 장면으로 남았고, "Lose Yourself"와 "8 Mile" 등 Eminem의 커리어에 길이 남을 명곡들이 배출되었다. OST 앨범 또한 힙합 거물들의 곡이 골고루 수록되어 있으므로 한 번쯤 청취할 가치가 있다.

반면 실화 바탕이 아니라고 해도 감흥을 주는 힙합 영화가 존재한다. 멤피스 지역의 힙합을 다룬 <Hustle And Flow>는 배우 Terrence Howard 가 주인공 'Djay'를 맡았으며, 포주 생활로 연명하던 그가 주변인들과 힘을 합쳐 래퍼로서 성공하는 꿈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삶의 밑바닥에서도 꿈을 향해 'Hustle'하는 이들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표현해 호평을 받았으며, 실제 멤피스 힙합의 거장인 Three 6 Mafia를 포함한 여러 남부 힙합 래퍼들이 OST에 참여해 몰입도가 상승한다. Three 6의 곡 "It's Hard out Here for a Pimp"은 "Lose Yourself"에 이어 두 번째로 오ска OST 부분에서 수상한 곡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힙합의 영향력은 블록버스터 시리즈에까지 유효했다. 블록버스터의 대명사 시리즈이자 '분노의 질주'로 알려진 <The Fast And The Furious>는 래퍼 Ludacris가 시리즈의 조연으로 출연하고 매 번 힙합 OST를 발표 할 만큼 힙합과 인연이 깊다. Pharrell Williams가 프로듀싱한 Teriyaki Boyz의 "Tokyo Drift"는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The Fast And The Furious: Tokyo Drift>의 OST로 사용되었으며, Pharrell의 모든 비트를 통틀어서도 가장 아이코닉하다고 평가받으며 Lil Yatchy의 "T.D."로 리메이크되기도 한다. Charlie Puth와 Wiz Khalifa의 "See You Again"은 시리즈의 주연이었던 Paul Walker의 추모곡으로, 감동적인 선율과 가사로 <Fast & Furious 7>의 엔딩을 장식하며 관객들에게 감정적인 여운을 남김과 동시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60억 회를 돌파했다. KHL

## 2부에 계속

KODAK P3200NTMZ



KODAK P3200NTMZ



KODAK P3200NTMZ



KODAK P3200NTMZ



# 900 단어로 쓰는 오션과 헵번의 **MOON RIVER** 스냅숏

by Indie Aisle

시대는 문화를 계보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이끈다. 그것이 내가 문화에 관해 파악한 가장 단편적이면서도 확실한 진리다. 셰익스피어와 구로사와, 소포클레스와 예이츠—혹은 하루키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모티프는 순환의 고리를 구축한다. 아주 조용히 잠들어 흙으로 돌아가던 모티프를 되살리고, 그것을 태중에 있던 새 정립과 결합시키는 것이 예술가들이 해왔던 순환의 기본적 프로세스다. 그리고 "Moon River"에 닿아있는 프랭크 오션(Frank Ocean)의 향취,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에게로 향하는 현사 역시 같은 재질의 것들이다. 같은 가사와 선율을 음미한다 해도 오션과 헵번은 명확히 구분되는 세계를 양분하는 것이다. 헵번의 세계에 포근함과 아늑함이 있다면, 오션의 세계엔 감정과 디스토션이 있다. 당최 아무 연관도 없는 두 인물들은 헨리 맨시니(Henry Mancini)의 감각적이고 고요한 선율만으로 두 시대를 공유한다.

따라서 오로지 그 선율만을 공유한 채, 각자의 시대에서 당대의 감정을 그려내는 둘의 음악엔 확실한 시대정신이 서려있다. 시대의 저편에서 헵번이 흑백 화면의 60년대, 더할 나위 없이 푸근한 공간을 쓰다듬으면 이편의 현재에서 오션이 현세만의 감정을 간드러지게 구조화시키는 식이다.

그래서 둘의 차이와 공통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도 음악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될 수 있다. 지금의 오션을 들으며, 그 당시 헵번이 어느 정도로 고혹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회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럼에도 특히나 오션에 있어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고—또 하나 대단한 것은 그 융용이 꽤나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저 조금 새로울 것이 있다면, 오션의 도가 튼 올드 팝 샘플 실력이 "Moon River"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사실 뿐.

오션은 진작에 Stevie Wonder의 "Close to You" 커버를 보코더로 변조했고 The Beatles의 선율을 "White Ferrari"에 빌려왔다. 바로크 팝과 소프트 록의 21세기화는, 적어도 오션의 세계에서만큼은 현대의 외로움을 담아 감정을 발산하는 일종의 장치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선상에서는 "Moon River"도 특별히 다른 작법으로 쓰이지 않았다. "Moon River"의 아늑함과 포근함, 그 속에 담긴 낭만적이고 동요적인 정경은 오션으로 하여금 21세기의 동요를 조직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감정적인 면모가 없는 '냉혹함'의 디스토션이 동화적 선율을 만나 역설적 감정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일련의 의식적 샘플 프로세스는 꽤 듣기 좋은 음악 작법이다. 그 가사적인 면모에서부터 프로덕션에 이르기까지, 헵번의 환상은 오션만의 색채로 바뀌어 오밀조밀하게 들어찬다. 달이 비치는 강과 신비로운 뱃머리, 이질감 없는 무지개의 끝, 모두 헵번이 그려낸 그대로다. 다만 오션과 헵번의 가장 명확한 차이라면, 오션은 그 언어적 영상을 자르고 이어 붙여 폭발적인 감정의 시각화를 이뤄냈다는 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건 누가 뭐래도 거부할 수 없는, 오션만의 예술적 기폭제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오션의 "Moon River"는 디스토션, 에코, 불명확한 사운드 소스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특히나 <Blonde>와 "Provider", "DHL"에서 쓰인 감정 전달의 디스토션은, 'Blonded Radio'라는 컨셉에 충실히 청자들의 감상을 훨씬 아날로그적인 무언가로 회귀시켜낸다는 점에서 특별한 인스트루멘탈이다. 아날로그적 분위기 위에 얼얼하게

울리는 디스토션 음과 보코더는 감정과 공간을 청각화하기 위해 부지런히 작열한다. 시간의 덧없음을 역설적으로 아련하게 변혁시키는 디스토션. 그 잡음을 바탕으로 깔리는 60년대의 포근한 선율은 현대인들이 가진 고유한 우울감을 동화적으로 위로하는 촉매 요소와 같은 것이다. 헤드셋 사방을 유영하는 오션의 다층적 화성 아카펠라와 함께, 주요 사운드 세션으로 활용된 라디오 풍의 디스토션은 대개 이런 성취점들을 목적으로 음악 내부에서 경조되고 녹아든다. 오션의 "Moon River"가 그만의 타고난 디스토션 활용 능력으로 감정 전달을 이뤄낸 것도, 이러한 사운드 세션 자체에서 의도된 감정 전달 덕택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곡이 헬번의 목소리로부터 비롯됐음을 알면서도 오션만의 무드의 사로잡히게 된다. 오션의 올드 팝 샘플러와 디스토션 사용이 어떤 방식으로 청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지, 우리가 "Moon River"를 통해 더욱 강하게 알 수 있는 이유이다.

한편 그럼에도 오션의 감정 전달 기반에 깔린, 헬번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녀가 "Moon River"의 세계를 창조한 탓이다. 그녀만의 인자함이 묻어나는 음색, 영화 음악의 작법에 따른 오케스트라와 긴밀한 합창 모두가 이미 반세기 전에 그들만의 감정을 전달한 바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자잘한 소음과 악센트마저 '달이 비치는 강'의 목가적 환상을 직조하는 서정성은 확연한 감정 전달의 선형적 산물로써 남는다. 어쩌면 그보다 더 나아간 'Moon River'의 공간 자체가, 그녀의 뛰어난 표현력 아래 구축된 세계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간특한 기교나 화려한 가창력을 선보이지 않는다 할 지라도, 현대 음악의 표현 예술을 표구하는 맨시니의 선율과 헬번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전설적이다. 아마 그건 반세기가 지난 현세의 관점으로도 걸출했던 헬번의, 그 재능과 성품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까닭과도 관계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곳까지 생각이 닿는 순간 오션 또한 헬번과 맨시니의 동화적 세계를 그리워했을 거란, 너무나도 명징한 사실이 짜릿하게 뇌리를 스친다. 오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헬번의 고혹적인 목소리를 사랑했던, 진실된 예술가였을 것이 분명하다.

특정 예술가에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그만의 예술에 대해 탐구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기 마련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오션의 예술에서 많은 올드 팝 아티스트들과 조우하게 된다. 전술한 The Beatles나 The Carpenters도 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60년대의 Beach Boys나 오드리 헵번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이들과 오션의 대조점을 찾아내고, 지난간 시대의 팝송들에 대한 고찰을 이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들 음악의 대변인이 되어있게 된다. 오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연구한 이들이 우리의 다음 음악 영감이 되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예술가로써 재탄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헬번도 같은 선상에서의 예술가다. 비록 연기자로서의 예술론이 기반에 깔려있지만, 그 예술의 방법이 어찌되었던지 간에 오션에겐, 시청자에겐 영감의 요소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녀의 1961년 작 <티파니에서 아침을> 속에, 그 안에서 그녀가 부르는 "Moon River" 속에 감정과 공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영감이 담겨있다. 우리가 천편한 영화와 미술, 음악을 희구하려고 하는 그 영감 말이다. 셰익스피어와 구로사와가 그랬듯이, 소포클레스와 예이초가 그랬듯이, 헬번과 오션 또한 그 긴밀한 영감의 인터플레이를 통해 두 시대를 대표하는 곡들을 만들어 냈고, 전설로서 기록되었다. 나로서는—이러한 오션과 헬번의 예술 순환이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다가올 따름이다.

달이 고요하게 뜬 강은 60년째 우리들의 세계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 시대의 분위기는 아직도 여러 아티스트들의 손을 거쳐 재탄생된다. 우리는 아직도 헬번 세계의 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적 미련들을 정시하자면 도무지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진리가 있다. 옛 격언을 따르듯이—세상의 모든 예술은, 그마다의 모티프를 계속해서 회귀시키는 것이다. **KHL**

# 니고, 칸예, 퍼렐 2이고 스캇

by 45

힙합은 힙합 팬을 넘어 일반 대중들의 일상생활까지 침투한 지 오래다. 흑인 사회의 암 면과 거리의 잔혹함을 알려주는 커뮤니티 문화를 넘어 현재는 일반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주류 문화가 된 것이다. 힙합이란 문화는 여러 갈래로 뿌리를 내렸고 랩, 그래피티, 디제이, 비보이 등 수많은 하위 장르를 만들어냈으며, 랩을 제외하고 현재 제일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는 장르를 뽑자면 힙합 패션을 꼽을 수 있다.

1990년대의 골든 에라 시기, 조던 시리즈, 팀버랜드, 폴로 스포츠, X-Large 체크 셔츠, 여러 워크웨어 등 패션계에 스포츠 의류, 워크웨어 의류 등 힙합 라이프스타일은 패션계에 접목되었다. 물론 락 밴드에서도 바이크 의류들과 밀리터리 의류들을 애용하였지만, 이들과 조금 다르게 초기 힙합 스트릿 패션들은 일상복들에 거리의 멋을 부여하여 그들의 삶 자체에 하나의 멋으로 녹아들고자 했다.





이외에도 2000년대엔 베이프, BBC(Billionaire Boys Club), 트루릴리전, 앤드원, 푸부, 에비수, 슈프림 등 힙합을 겨냥한 브랜드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그들만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여 일반 대중들도 즐기는 패션의 종류가 되었다. 이 당시 슈프림, 베이프를 제외하면 힙합씬에 대한 패션계의 대대적인 러브콜이 없었지만,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니고(Nigo), 칸예 웨스트(Kanye West)와 퍼렐 월리엄스(Pharrell Williams)를 기준으로 판이 뒤바뀌게 된다.

이들은 정형화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스트릿 패션을 좋은 방향으로 획일화하였으며 그동안 가볍게 소비되던 힙합 패션들을 고품스럽게 만들었다. 또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 모두 정식으로 패션 디자인 공부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과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독창적인 의류들을 제작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칸예의 곰돌이 베이프 스타, 주된 테마는 힙합이지만 아메리칸 캐주얼과 밀리터리 의류에서 영감을 받은 니고의 베이프, 퍼렐과 니고만의 해석으로 재창작한 BBC 등은 아직도 스트릿 패션계의 전설로 남아 카카지, 반드시 더 핑크, 키드 커디의 멤버스 오브 레이지 등 수많은 아류들을 남긴다.

위 삼인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거의 최초로 힙합을 하이엔드에 적용하여 다시 한번 변화를 도모한다. 칸예의 이지 시리즈, 겐조의 디렉터 니고, 그리고 마지막 화룡점정인 퍼렐 월리엄스의 루이비통 디렉터 경력까지 다시 한번 영역을 확장했다. 하이엔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류들은 일상복으로 입어도 될 만큼 간소해졌다. 과하지 않은 선에서 은은한 매력을 향긴 것이다.

하이엔드가 나온 김에, 오피엄 크루의 교복과 유사한 발렌시아가를 짚고 넘어가겠다. 60~70년대 영국 평크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옷들은 무채색의 색감에 미래지향적 느낌을 강조하여 아방가르드함을 표방한다. 독특한 핏과 무채색에서 비롯된 강렬한 인상들은 당시 주류층을 향한 거부 의식과 공격성을 나타낸다.

Playboi Carti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을 락스타라고 자칭할 만큼 옛 평크 밴드의 정신인 거부 의식과 날것의 멋에 매료된 느낌이 강한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덤라의 발렌시아가 의류들을 애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비슷한 맥락으로 비교적 비슷한 방향성을 가진 릭 오웬스를 애용하는 이유도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이들과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아티스트 한 명을 뽑자면 단연 이 시대의 락스타 트레비스 스캇(Travis Scott)을 뽑을 수 있다. 스캇의 특징은 빈티지에 대한 오마주이다. 다른 래퍼들과 다르게 명품 중에서도 빈티지 제품을 착용하는 것을 즐기며 빈티지의 대명사로 불리는 밴드 티셔츠들을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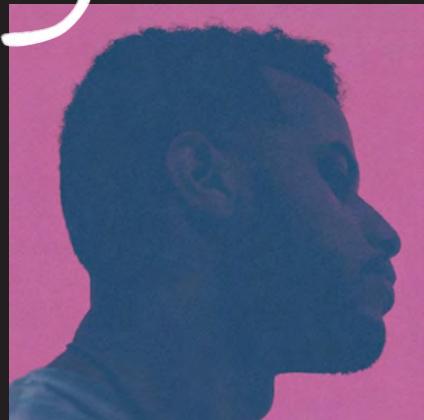
스캇의 성향은 그가 론칭 중인 캐터스 잭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옛 밴드 문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옛 날 Pink Floyd와 Nirvana, 그리고 Guns N' Roses 같이 머천다이즈 의류를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2000년대 초 Three 6 Mafia, Ghostface Killah, Jim Jones 등을 내세워 힙합 문화에 가장 먼저 리스펙을 표한 보드 브랜드 슈프림도 애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위 세 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미래 힙합과 패션계의 거물로의 성장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으며,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확고해 앞으로의 행보가 가장 기대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처럼 요즘 조용한 밴드 뮤지션들의 패션 공석을 대신하여 힙합 아티스트들이 패션니스타로써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힙합 = 랩'이라는 단순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각종 장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KHL**



# EDITORS PICKS



## Bastard

**Tyler, The Creator**

- 1. Bastard / 2. Seven / 3. Odd Toddlers (Ft. Casey Veggies) /
- 4. French! (Ft. Hodgy) / 5. Blow / 6. Pigs Fly (Ft. Domo Genesis) /
- 7. Parade / 8. Slow It Down (Ft. Hodgy) / 9. AssMilk (Ft. Earl Sweatshirt) /
- 10. VCR / Wheels / 11. Session (Ft. brandUn DeShay, Hodgy & Mike G) /
- 12. Sarah / 13. Jack and the Beanstalk /
- 14. Tina (Ft. Jasper Dolphin & Travis Bennett) / 15. Inglorious

2009.12.25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가 컨셉 앨범의 신통한 재간동이라는 명제는 이미 그가 루키였을 때부터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Yonkers"의 활달한 히트메이커가 아니더라도, 호러코어 시절의 타일러 역시 충분히 창조적인 무질서를 연출했다는 이야기다. 깨름칙한 사이키델릭 신스의 향연, 정신을 괴상하게 뒤틀어 놓는 스트링, 업기적인 가사 가운데엔 언제나 그만의 자의식이 존재했다. 실로 반향과 정열에 가득 찬 DIY 정신이 빛을 발했다면 발했다고 선언할 결과값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정의 의의가 아닌 결과의 작품성이다. 호러코어 타일러의 <Bastard>는 본인만의 무질서에 도취되어 비틀대는 모습 역시 앨범 전반에 걸쳐 노출시킨다. 그것이 의도적인 혼돈인지 유기성과 연출의 오용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타일러만의 세계만은 여실히 밝혀졌다는 점이다. 요체를 운위하기 힘든 혼돈스러움만이 캘리포니아 불량배들의 시꺼먼 터력으로, 스산하게 숨을 헐떡인다.

by Editor Indie Aisle

## Borderline

**Christian kuria**

- 1. Remain / 2. Tell Me When / 3. Demons (Interlude) /
- 4. Too Good / 5. Losing You /
- 6. Bitter Pill (Ft. Braxton Cook & Jack Dine) / 7. 2015

2020.01.29

크리스찬 쿠리야(Christian Kuria)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으레 촉촉한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매력적 보이스가 꽉히겠지만- <Borderline>에서만큼은 그 프로덕션의 존재감 역시 제할 수 없다. 알앤비의 청각적 쾌감을 극도로 강화한 프로덕션에서 청자는 마침내 쿠리야만의 격렬한 로맨티시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디 알앤비 씬 통한의 히트곡 "Too Good"을 필두로 한 7개의 곡들은 앨범 내에서 스스로 경조되고 융화되며 끝내는 본연의 담백함을 되찾는다. 이지리스닝의 끝을 달리면서도 표현의 원숙함을 담은 <Borderline>은, 상당 부분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그 섬세한 감수성을 조직한다. 따라서 본 앨범은 듣기에 부담스러울지언정 프로덕션 면에서의 결함을 일소한다. 앨범 이전의 싱글들이 이지리스닝과 즉발적 선율에만 집중했던 것과는 그 맹아부터가 뒤바뀐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련의 프로덕션적 실험성을 오로지 그 마법 같은 목소리로 연화했다는 사실은 쿠리야에 대한 경외감마저 유발한다. 그건 분명 음악적 평가를 초월한, 순수한 경외감일 것이다.

by Editor Indie Aisle



## Scumbag

### Bones

1. BackstreetBoy / 2. Nightmare / 3. BamMargera /  
4. BoyBand / 5. DieForMe / 6. NoShirt / 7. BurntDown /  
8. Dirt / 9. DeathMetal / 10. StayTheNight / 11. GraveyardGod /  
12. Corpse / 13. BathHouseBlunts / 14. Sanctuary /  
15. HauntedHouse / 16. RedVelvetSofa / 17. BobbyKennedy /  
18. LimitedEdition / 19. Grave

☆추천 8. Dirt, 13. BathHouseBlunts

2013.08.18

2010년대 초반, 인디 음악가들이 그들의 주소를 인터넷으로 옮기며 음악 배포 방식이나 음악적 시도 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것들이 배출되었다. 클라우드 랩 또한 마찬가지이다. A\$AP Rocky와 Yung Lean 등 클라우드 랩스타들은 분명한 인터넷의 수혜자이고, 새로운 세대들은 클라우드 랩의 음침함에 매료되었다. Bones 또한 기류의 구석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평범한 힙합 아티스트였다면 수준 이하로 평가받았을 그의 보컬과 가사는 장르적 특성에 훌륭히 융해되어 특유의 몽환적인 호러코어 톤을 조성한다. 리버브로 잔향을 잔뜩 증폭시킨 피아노와 스트링 위주의 샘플 기반 비트들은 청자를 압도할 만큼이나 위력적이다. Rocky의 "Canal St." 원형이 된 "Dirt", 전설적인 샘플을 독특하게 재해석한 "BathHouseBlunts" 등 하나 같이 매혹적인 곡들로 구성된 <Scumbag>은 Bones의 수많은 작업물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

by Editor 온암



## Cheers to the Best

### Memories

dvsn & Ty Dolla \$ign

1. Memories / 2. Don't Say A Word / 3. Can You Take It (Interlude) /  
4. Outside / 5. Can't Tell (Ft. YG) /  
6. Somebody That You Don't Know (Ft. Rauw Alejandro) /  
7. Fight Club / 8. Rude (Ty Dolla \$ign Interlude) /  
9. Better Yet (dvsn Interlude) / 10. Wedding Cake /  
11. I Believed It (Ft. Mac Miller)

2021.08.20

피처링으로는 크고 많은 임팩트를 남겼지만 자신의 정규 앨범에서는 반대로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던 타이 달라 싸인(Ty Dolla \$ign)과 1 보컬 1 프로듀서 체제를 유지하던 디비전(dvsn)의 합작은 알앤비/소울 장르의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타이 달라 싸인이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보컬로 중심을 잡아주면, 하이 노트 파트를 디비전의 프론트맨 다니엘 데일리가 담당하는 역할을 다들 예상했을 것이고, 이는 보기 좋게 적중했다. 인트로 "Memories"의 첫 벌스에서 토크 박스와 두터운 코러스와 함께 진행되는 타이 달라 싸인의 보컬, 그 다음으로 치고 들어오는 다니엘 데일리의 팔세토는 두 보컬의 조화로움이 앨범 내내 진행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이다. 세상을 떠난 Mac Miller가 목소리를 보탠 아웃트로와 그 전 트랙 "Wedding Cake"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기분 좋은 추억들을 회상하게 만드는 두 보컬의 합작은 매우 인상적이다. 다니엘 데일리가 팀 프로젝트와 같이 강렬함보다는 보다 분위기에 얹혀 들어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점, 텐션을 떨어뜨리는 YG의 피처링 참여 등 아쉬운 점이 없었던 건 아니었으나, 얼터너티브 알앤비 씬을 주름잡고 있는 두 아티스트가 한 앨범에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by Editor 공ZA

---

ZOOM  
TERVIEW

---

DANCED

## Intro

###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음악 관련 인터뷰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공ZA라고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턴가 이 표현을 되게 즐겨 쓰고 있는데, 한국 힙합 프로페셔널 리스트인 DanceD(이하 댄스디)입니다. 그 외에는 잡다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댄스디님께서 2년 전쯤에 힙합엘이 스텝 직을 내려놓으시면서 게시판에 업로드한 장문의 글이나 힙합엘이 자체 스텝 인터뷰도 참고 삼아 읽어보았는데, 댄스디나 닷원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이미 그 인터뷰에서 이야기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낙네임에 대한 유래는 넘어가고, 2023년 댄스디님의 근황은 어떠한지 먼저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직업적으로는 새 일터가 생겨서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할 예정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순환기 내과 의사인데, 지금까지는 수련 과정에 있었다면 내년 3월부터는 교수 직함을 달고 모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련해서는 12월에 둘째이자 아들이 태어날 예정입니다.

| 안 그래도 힙합엘이에서 언젠가는 교수 직함을 달고 일하고 싶

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인터뷰 직전에 댄스디님의 딸님이 설거지하는 영상을 봤는데 곧 아들이 태어난다니 황금 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 교수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근황을 이야기해주셨고, 현재 닷원이라는 이름으로 래퍼 활동을, 인스타그램에서는 '밀감싹 (밀렸던 앨범 감상 짹 다 하기 프로젝트)'이라는 이름으로 리뷰도 진행하시잖아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를 활동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워라밸을 어떻게 조정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남는 시간에 조금씩 하는 거죠.

밀감싹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차 타고 다니면서 노래를 듣고, 관련 글은 각 잡고 쓰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이브 원고 식으로 여러 개를 쌓아놓은 다음 업로드 할 시기가 되면 올리고 있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닷원으로서의 활동은 틈틈이 휴대폰으로 써왔던 가사들을 중간중간 휴가나 오프 때 몰아서 녹음하고, 그래도 남는 시간이 있으면 가사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면 시간은 1시에 잠들어서 6시에 일어나고, 낮잠을 많이 자는 편이에요.

대단하시네요. 본업을 하면서 취미 활동을 두 세 개 정도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부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존경스럽다는 마음가짐이 듭니다. 워라밸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해보니 게시글이 거의 천 개가 넘어가더라구요. 밀감싹 프로젝트는 메인 리뷰는 보통 한 앨범이 장문으로 올라오지만, 앨범 소개 형식은 여러 개의 앨범이 한 게시글에 업로드되기도 하잖아요? 정말 많은 앨범들을 디깅하시면서 감상글을 적어주셨는데 이 콘텐츠를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앨범이나 아티스트가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다면 다 남고, 안 남는다면 다 안 남는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나중에 인지도를 쌓고 잘 되는 것 같을 때 좀 더 반갑기는 해요.

그런 케이스에서 몇 명 이야기해보자면 아웃리브의 전현재나 인지도가 아직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도더나블라 등이 있어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중독>이라는 믹스테잎을 듣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DM으로 이 앨범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작업 방식은 어땠냐 등 여러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줌터뷰로 모신 분의 이름이 댄스디님의 답변에서 나오니까 괜시리 더 반갑네요. 곧 이도더나블라님의 팀 451(Xaoil)의 정규 앨범이 발매된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럼 래퍼 닷원으로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닷원의 계획을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시간이 정말 잘 안 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5월에 은퇴 번복 앨범을 발매한 이후에 사실 아이디어가 계속 쌓여서 앨범을 하나 더 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앨범 가제목은 '지극히 힙합적이지 못한'으로 만들어놨고, 트랙리스트도 어느 정도 구상은 해놓았어요. 그런데 첫 트랙의 타입 비트부터 못 고르고 있어서 막힌 지가 몇 달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인간관계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담은 <"그">라는 믹스테잎을 발매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해서 그러한 트라우마를 비워내고자 <"그" 2>를 제작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항상 가사는 미리 작업을 해놓으니 상관이 없는데 비트 초이스나 녹음 같은 부분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언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그 2">와 새로운 앨범 '지극히 힙합적이지 못한'을 준비 중이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되었나요?

마지막 믹스테잎 <음... 네>의 구성을 보면 제가 마지막에 랩도 못 하는데 무슨 힙합이냐라는 식으로 자학에 빠지다가 그럼에도 나는 힙합이다라는 메세지를 담은 "I AM HIPHOP"이 나와요.

물론 보너스 트랙이 한 트랙 더 있기는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앨범이 그렇게 마무리 되거든요.

그걸 토대로 저는 '지극히 힙합적이지 못한'에서는 제 일상이나 가족 이야기를 통해 힙합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힙합이라는 콘셉트를 잡고 싶었어요.

원래는 괜히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아 곡 작업을 할 때 제 직업 이야기를 거의 담아내지 않았었는데, 이 앨범에서는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 힙합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척을 하는 저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 첫번째 질문 :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

후디 - <향해>

다음 앨범에 대한 구상이나 콘셉트도 소개해주셨고, 본격적인 인터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는 어떤 곡이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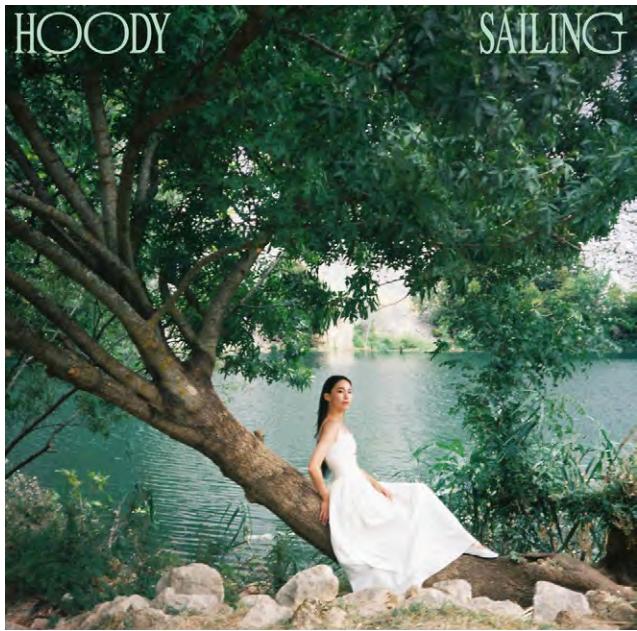
곡을 소개하기 전에 밀감싹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상술하자면 제 음악 감상이 이 시리즈를 시작한 이후로 최근에 발매된 노래를 듣는 경향으로 가게 되더라구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건강한 감상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물론 노래들을 억지로 듣는 건 아니지만 감상을 계속 적어야 하니 최근에 발매된 앨범 위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최근에 들은 앨범은 퇴근하면서 들었던 후디의 <향해>예요. 한 곡을 고른다면 셀프 타이틀 트랙인 "향해"입니다.

전부 듣지는 못 했는데 편하고 대중적이었던 전작 <Departure>에 비해 좀 더 심오하게 풀어낸 느낌이었어요. 종종 나오는 특이한 사운드 연출도 기억에 남구요.





사실 알앤비/소울 장르는 잘 아는 편이 아니다 보니 한번 듣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인상은 보다 깊어진 후디를 엿볼 수 있었고, 피처링 아티스트들과의 조합도 괜찮았습니다.

지소울이나 피에이치원(pH-1)은 박재범 사단 하에 함께 했었기에 나름의 케미스트리가 돋보였고, 진보도 자연스럽게 잘 녹아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들은 작품으로 후디의 <항해>를 소개해주셨고, 밀감싹 콘텐츠를 진행하시면서 이후에 들어야 할 앨범 리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기대되는 작품도 있으실까요?

제가 아직 스윙스의 디스곡 “Korean Copycat”을 못 들어 봐서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되고, 앨범 단위로는 펜토의 <SEEK>이 궁금해요.

최근에 발매된 작품인데 밀려 있는 앨범들이 많이 때문에 그 앨범까지 가려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루에 음악을 들을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어쩔 수 없겠네요. 보통 밀감싹 리뷰는 한 번 듣고 바로 작성하시는 걸까요?

이 앨범을 듣고 정리된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듣는데, 인상이 분명한 앨범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들어도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앨범은 여러 번 들어봐야지 정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으면 네 다섯 번도 돌려듣기도 합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뉴웨이브 레코즈에서 발매된 작품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하지만 <KB 2>는 듣다 보니 할 말이 많아져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후자는 최근에 언오피셜보이의 <MYEdrugonline>을 여러 번 돌려 들었던 것 같아요. 포스팅을 보시면 짧은 글과 긴 글을 번갈아 가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 <KB 2> 같이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은 앨범을 선정해서 풀 리뷰 형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 질문 :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

인디고에이드 - <EEP : EARTH EVERLASTING POETRY>

밀감싹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도 덧붙여주셨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어떤 곡이었을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앨범은 인디고에이드의 <EEP>예요. 한 곡을 고르자면 “줄”입니다.

이 작품도 긴 글로 쓸 예정인데 앨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보자면 총 4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앨범인데, 앞선 <ELP>, <EOP>, <EVP>와는 다르게 본작은 현실적인 인디고에이드의 이야기를 담아냈어요.

어떤 영화를 보면 초반에는 판타지 요소를 섞은 이야기로 진행되다가 후반부에서는 사실 현실의 이런저런 면을 비유한 것임을 반전처럼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EEP>가 그러한 반전을 담당하는 작품인 것 같고, 서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서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원래도 응원을 하는 아티스트라 이전 앨범들도 호감을 가지고 들었었는데 이번 앨범이 특히 임팩트가 있더라구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선 작품들의 앨범 커버가 전부 파란 얼굴의 외계인이었다면, 본작에서는 색은 유지되었지만 외계인이 아닌 우주복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점에서 인디고에이드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앨범의 트랙들 중에서 “줄”을 골라주신 이유도 있으실까요?

“줄”에서는 쇼미더머니 시즌 10 1차 예선에서 인디고에이드가 코드 쿠스트에게 ‘저 원재 형 후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앨범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특히 “줄”에서는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줄’이라는 제목도 쇼미더머니 심사를 보기 위해 줄을 선 것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구요.

앨범의 전반부가 나름의 고충 속에서도 자신감에 차 있는 인디고 에이드를 엿볼 수 있다면 후반부는 되게 우울하게 전개되는데, 그러한 전환되는 분위기가 “줄”을 통해 연출되어 골라보았습니다.

앨범의 흐름을 뒤바꾸는 중요한 역할의 트랙이라서 “줄”을 선정하셨다고 이야기해주셨고, 인디고에이드가 원재 형 후배 사건은 악마의 편집이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앨범을 들어보았을 때 인디고에이드의 입장이나 그 때 당시 느꼈던 감정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그 전 트랙들부터 본인의 성장과정이나 자라온 배경들을 이야기하고, “홍대”나 우원재의 전 랩 네임이었던 “뭉크”를 통해 본인의 서사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줄” 이후 앨범의 후반부에서도 본인이 느낀 감정 변화를 잘 표현하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앨범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겠죠. 딥플로우가 <FOUNDER>를 발매했다고 해서 노바빔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디고에이드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모

습을 충분히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세번째 질문 : 나만 알고 있는 노래

#### 로기 - “LIFE”

설득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인디고에이드가 최선의 결과물을 발매했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작품으로는 <EEP : EARTH EVERLASTING POETRY>를 골라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댄스디님의 나만 알고 있는 노래는 어떤 곡으로 선정해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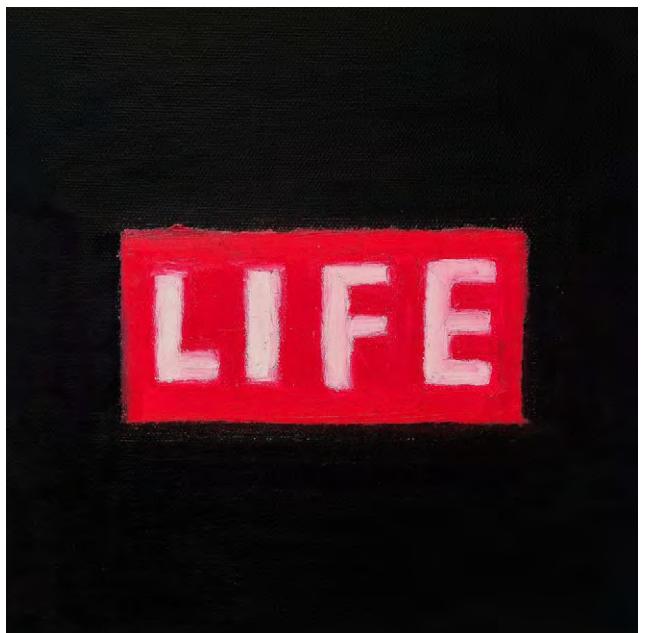
자기가 래퍼라면 보통 이 코너에서 본인의 곡을 이야기하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웃음)

겸사겸사 제 후배도 소개할겸 제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로기의 “LIFE”로 골라보았습니다.

로기는 힙합 동아리에서 후배로 만난 사이인데, EP는 한 장이지만 싱글은 정말 많이 발매를 했어요.

듣기 편한 싱잉 랩 스타일을 위주로 꾸준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나가는 친구인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샌가부터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을 앨범 커버로 사용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인상적이고, 달마다 싱글을 발매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해서 “LIFE”라는 곡도 그 일환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앨범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줌터뷰를 통해 로기라는 후배 분도 소개해주셨고, 이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친한 사이다보니까 가끔 도와주기는 하는데, 사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틀딱 블랙을 주로 하다 보니 스타일 차이로 인해 같이 작업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LIFE”는 허쓸을 주제로 보다 진중한 느낌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제게 얘기를 했고, 저도 새로운 스타일을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과 맞물려서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벌스에서 약간 싱잉을 섞어보았는데, 제가 만든 벌스 중에서는 만족하는 편에 속해요. 곡에서 로기는 '댄스디만큼 허쓸하는 사람이 어딨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당연하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허쓸이냐'라는 겸손한 스웩을 선보였습니다.

### 네번째 질문 :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

#### 이그니토 - “Death Penalty”

이 이야기를 들으니 힙합엘리 댄스디 소개 글에 마지막으로 적었던 멘트가 생각나네요. '나만큼 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어?' 나만 알고 있는 노래로 소개해주신 “LIFE”에도 관련된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것 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인데요. 라이브는 보통 많이 가시는 편이신가요?

지금은 잘 못 가지만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힙합 공연을 간 게 수능이 끝나고 나서였는데 그 당시에 더콰이엇이 아직 소울 컴퍼니였던 시절에 하던 '더 쇼'라는 언더그라운드 공연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런 공연들이나 이그니토의 <Demolish> 쇼케이스, 더콰이엇의 <Music> 쇼케이스 등 재밌는 공연을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인터뷰이들이 제 또래이다 보니까 '플레이보이 카티(Play-boi Carti) 공연 재밌었어요', '에이피 알케미 무료 콘서트 인상 깊었어요'라는 최근 아티스트들의 공연 후기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근본 있는 공연 라인업을 이야기해주셨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블루프린트가 폐업하기 전에 갔던 SRS를

제외하고는 마지막으로 공연을 갔던 게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중간에 한두 번 정도 힙합 콘서트란 이름이 붙은 공연을 표가 생겨서 다녀오곤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언더그라운드 힙합 공연이랑은 워낙 달랐어서 공연을 갔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당장 직업과 육아의 무게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공연을 가보고 싶으신가요?

공연을 하도 안 가다 보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큰 공연은 제가 옛날에 다니던 공연과 느낌이 달라서 만약 갈 수 있다면 더콰이엇이 진행하는 랩하우스가 좋을 것 같네요.

홍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공연이기도 하고, 다양한 출연진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고, 무대도 낮고 관객들과 거리가 가까워 아티스트와 관객이 같이 호흡할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싶은 공연으로 랩하우스를 골라주셨고,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는 어떤 곡으로 골라주셨나요?

원래는 박정현 노래로 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곡이 있어요.

이그니토의 “Death Penalty”인데, 공식으로 발매된 곡은 아니고 힙합플레이야 쇼에서 했던 비공식 곡이에요.

이 라이브를 저는 현장에서 들었었는데 웃긴 게 이 때 당시에 제가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을 가면 안 됐었는데 그냥 갔습니다. (웃음)

당시 힙플쇼는 신인 두 명을 선정한 다음 무대로 올렸었거든요. 그 중 한 명이 이그니토였는데, 무대에서 이그니토를 처음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던 기억이 나오요.

앞서 말씀드렸듯 “Death Penalty”는 네크로(Necro)라는 래퍼의 “Your Fuckin’ Head Split”이라는 곡의 비트에 1절은 “Carnival”, 2절은 “언더 래퍼들에게 고함”이라는 트랙들의 벌스를 따와서 공연한 곡이에요.

벌스와 곡의 분위기도 너무 잘 어울렸고, 이 때의 감동을 다시금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네요.

처음 이그니토를 보고 느꼈던 감동과 충격과 함께 “Death Penalty”는 공연이 아니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골라주신 것 같네요. 이 공연 이후 <Demolish> 앨범도 나왔고, 하드코어 힙합을 콘셉트로 이런저런 활동을 이어나갔잖아요?

최근에도 LBNC에서 새로운 앨범을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이그니토는 이전의 이그니토에 비해 어떤 것 같나요?

아직까지도 좋아하는 래퍼고, 레버런스와 바이탈리티 등 특유의 무게감을 유지한 채로 잘 활동해왔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지금 활동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발매하는 앨범마다 무게의 차이는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그니토가 할 수 있는 게 다양한 아티스트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새 앨범이 나온다면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다를 것 같아요. 차붐의 “Shocking Asia” 같은 싱글을 들어보면 이전과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면이 어색하게 다가올 것 같긴 하지만 또 하나의 매력으로 잘 적응해 봐야죠.

## 다섯번째 질문 : 여행과 관련된 노래

린지노 - “Gym”

이전의 이그니토의 모습을 새 앨범에서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그니토에게 오히려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여행과 관련된 노래인데요. 가족이 생긴 이후로 여행은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마 결혼을 하시고 아기가 생기고 나면 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달라지는지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아내는 밖에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두 달 단위로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곳저곳 여행을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아이를 쟁기면서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를 가질 못 하는 거죠. 특히 아기 때는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많지 않아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이 생기고 난 지금 가는 여행이 어떤 의미냐고 하면 아이의 문화적 함양을 위한 부모의 의무라고 해야 할까요?

예전 같았으면 부부를 위한 여행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서아가 보면 좋아하겠다, 이걸 보면 어떤 걸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거죠.

보통 아내가 심심해한다거나 국내에 너무 오래 있었다 싶으면 한 번, 서아에게 보여줄 게 생겼다 싶을 때 한 번, 해외에서 학회가 열릴 때 겸사겸사 한 번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보통 제 의지보다는 여행을 끌려가듯이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의무감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나네요.

그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행을 가게 되면 현재로서는 따님분이 항상 동행을 하시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안 그래도 10월 달에 샌프란시스코를 학회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지금 아내가 만삭이다 보니까 함께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도 덩달아 못 가서 저 혼자 가게 되기는 했지만 보통은 셋이 세트로 여행을 떠납니다.

가장 마지막에 셋이서 같이 갔던 여행은 국내에 1박 2일로

잠깐 콘도를 다녀온 걸 빼면 저희 부모님 환갑 여행 때문에  
발리를 간 적이 있었어요.

발리의 음식이 어른들한테는 맛있어도 애 입맛에 잘 안 맞다  
보니까 밥 먹이기도 힘들었고, 마지막에는 장염까지 걸려서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행 관련 질문에 저같이 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웃음)

올드스쿨티처님을 제외하면 처음인 것 같기는 하네요. 혼자 가는 여행과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셨고, 여행에 관련된 노래는 어떤 곡으로 선정해주셨나요?

제가 여행을 크게 좋아하지 않음에도 일본은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일본도 여러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노천탕에서 쉬면서 바깥 풍경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전에 가족과 함께 큐슈 패키지로 여행을 갔을 때 두 세 시간 정도 유후인이라는 작은 동네에 들렸었는데, 길거리 시장도 아기자기하게 있고 온천도 잘 되어 있더라구요.  
부모님께서는 그 여행이 무척 마음에 드셨는지 그 이후로 1박 2일로 한 세 번 쯤 더 가셨는데, 저는 유후인을 갈 때마다 일 때문에 못 가서 부러워하기만 했었어요.  
최근에 발매된 빈지노의 <NOWITZKI>의 마지막 트랙 “Gym”을 들어보면 그 유명한 ‘설경구경 설경구야’라인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가사냐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노천 온천에서 눈 쌓인 주변 풍경을 보며 느긋하게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여행과 관련된 노래를 골라보자면 빈지노의 “Gym”입니다.

누군가에는 설경구 라인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댄스디님에게는 유후인 노천탕의 노곤노곤한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찰떡처럼 다가온 거네요.

여행에 관련된 노래는 빈지노의 “Gym”으로 골라주셨고, 이곡이 수록된 <NOWITZKI>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밀감싹에도 작성했지만 저는 되게 좋게 들었어요. 제 글에서 <NOWITZKI>는 빈지노의 ‘결혼 장려 앨범’ 같다고 적었거든요.

앨범 초반부에는 말도 안 되는 가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다가 갑자기 빈지노가 혼자 타임에 빠져요. 그러다가 후반부의 “Radio” 같은 곡을 들어보면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어서 다시 힘을 낸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결혼하고 느꼈던 점이랑 일맥상통해서 공감이 많이 됐고, 기본적으로 빈지노가 힘을 빼고 편안하게 작업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생활 밀착형 앨범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꾸며서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살면서 나오는 자연스



러운 바이브를 가지고 만든 것 같더라고요.

전작 <12>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빈지노가 애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작에서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내추럴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여려모로 되게 좋게 들었습니다.

| 그럼 댄스디님은 빈지노와 마찬가지로 결혼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 친구들이 결혼에 관해서 물어보면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대답해요. 진짜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 같다 싶으면 하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아이를 가지는 건 절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질러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안 좋은 것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웃음)

물론 결혼과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신 그 사람들한테 '그럼 50대, 60대 때 홀로 남겨지는 게 두렵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는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더 느끼냐면 일을 하면서 만나는 환자들의 나이대가 많은 편이에요. 언제는 60대 환자가 왔는데 결혼을 안 해서 보호자로 80대 어머니가 와서 듣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아내나 자녀가 있다면 이럴 때 와서 참고사항을 들을텐데, 이 어머님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실까, 나중에 관리는 될까 같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 여섯번째 질문 : 취미와 관련된 노래

K/DA - “POP/STARS”

|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신 가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취미와 관련된 노래인데요. 댄스디님의 취미는 어떻게 되시나요?

말마따나 힙합이죠. 여담이지만 줌터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통 힙합이 취미이실텐데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더라고요.

힙합이 아니라면 어떤 신선한 답변을 해야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구독하는 게 음악 관련된 게 아니면 게임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채널이거든요.



제가 게임에는 재능이 없어서 직접 하는 건 정말 못 하다 보니 남이 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 영상을 보는 게 나름 취미라면 취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된 노래가 뭐가 있을지 고민해봤는데 솔직히 마땅히 고를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K/DA의 “POP/STARS”로 선곡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살짝 죄책감을 느낀 게 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게임을 잘 못 해서 가장 좋아하는 게임류는 실력 필요 없이 머리만 굴리면 되는 포인트/클릭 시리즈예요.

그래도 굳이 이 곡을 고른 이유는 게임 관련 음원 중에서는 상당히 훌륭하게 나온 곡이라서 저도 즐겨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으면서 멜로디도 좋고, 템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유지된다고 생각했어요.

#### 일곱번째 질문 : 과거/현재/미래를 대표하는 노래

과거) 키비 - “소년을 위로해줘”

현재) 이센스 - “What The Hell”

미래) 김아일 - <some hearts are for two>

룰이라는 게임과는 큰 연관 없이 게임 관련해서 퀄리티가 높은 음원 중 하나로 “POP/STARS”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저도 룰을 안 하지만 (여자)아이들의 멤버들이 이 팀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에 한 번 들어봤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노래인데요. 혹시 세 가지 테마를 전부 골라주셨나요?

이 질문 자체가 힙합 씬이나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접목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과거를 대표하는 곡은 키비의 “소년을 위로해줘”입니다. 우선 키비는 제가 처음으로 몰입할 정도로 빠진 아티스트예요. 팬이라고 할 만한 래퍼였고, 그 아티스트를 처음 접한 곡이 “소년을 위로해줘”였어요.

키비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의 심리를 건드리는 감성적인 가사나 표현법들이 참 좋았어요. 요즘에는 가사보다 사운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비우고 쓰는 가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랩은 'Rhyme & Poetry'라는 의견이 많았었고, 저도 시적인 가사를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키비라는 아티스트에 자연스럽게 빠진 듯 해요.

힙합 씬 차원에서 놓고 보아도 이런 감성이나 스타일이 2003년에 많이 유행했으니까 거의 시초 격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과거를 대표하는 노래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현재를 대표하는 노래는 이센스의 “What The Hell”로 골라보았어요. 이걸 잘 말해야지 포장이 될 텐데 트렌드라는 걸 무시하고 골든 에라가 연상되는 클래식한 스타일로 앨범을 발매했잖아요?

최근 들어 트랩으로 완전히 치우쳤던 한국의 힙합 씬이 다시 근본으로 어느정도 회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움직임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금통> 자체가 큰 생각을 많이 하고 낸 앨범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스타일에 있어 전통적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 중에서도 “What The Hell”이 더욱 근본에 집중한 트랙인 것 같아요.

뭔가 라임을 가지고 하는 기술적 스웨거가 느껴지는 듯 해요. '라임을 내가 이만큼이나 맞췄다'와 같은?

그런 부분에서 과거와 어울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의 곡이 현재에 나왔으니 현재를 대표하는 노래로 선정하였습니다.

미래를 대표하는 건 앨범으로 골라보았는데 김아일의 <some hearts are for two>이고, 한 곡을 고르자면 “Waterfall”이에요.

쇼미더머니가 끝나면서 힙합과 대중과의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이게 트렌드를

벗어나 대중의 눈치를 안 보는 매니악한 작품들이 더 많이 생기는 기회가 되지 않을지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아일의 앨범이 상당히 실험적으로 나왔거든요. 앨범을 들어보면 가사나 사운드를 거의 쓰지 않은 트랙들도 있고, 말 그대로 전위예술에 가까워요.

그런 면에서 음악을 더욱 예술적이고 매니악하게 파고 들고, 청자를 고려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고드는 방향 중 하나로 이 앨범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XXX도 대중 친화적으로 음악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걸로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들은 나름대로 대중에서 멀어지고자 하지만, 그게 하나의 대중을 이끄는 움직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상상에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쇼미더머니라는 한국 힙합의 큰 축을 대표할 만한 방송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조금 더 매니악한 하위 장르들이 탄생되어 다양한 흐름을 만들고 그걸 좋아하는 대중들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김아일이 앨범 발표 이전에 사운드클라우드에 공개했던 곡들처럼 랩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들어보니 전위적인 사운드를 담고 있어 신선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오더라구요.

저도 랩 위주의 앨범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례로 “Pt. 2”는 또 랩 트랙이라서 그래도 랩이 죽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 마지막 질문 : 인생 곡 혹은 인생 앨범

#### Eyedea – “Even Shadows Have Shadows”

아무래도 감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음 행보도 무척 기대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노래들도 각각 하나씩 골라주셨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요. 본인의 인생 곡 혹은 인생 앨범을 소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감싹 프로젝트로 인해 청취 습관이 최신 곡 위주로 듣는 걸로 바뀌어서 집중해서 한 곡을 듣거나 인생을 관통하는 트랙이 사실 상 없기는 해요.

하지만 인생 곡을 이전에 가장 좋아했던 트랙 중 하나로 골라보자면 외국 언더그라운드 래퍼 아이디어(Eyedea)의 “Even Shadows Have Shadows”라는 곡이 있어요.

‘그림자에게도 그림자가 있다’는 멋있는 제목이고 정말 엄청 나게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해요. 이 곡은 아무도 가사 해석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나서서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계속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티스트인데, 이 곡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울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가득 차 있어요.

후렴도 없고 4분 40초 동안 벌스만 나오는데, 가사가 전부 세상을 향한 시니컬한 태도와 분노로 이루어져있어요.

저도 예전에 우울감에 자주 젖어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아직 아침에 일어날 좋은 이유를 찾지 못했다’

와 같은 라인을 들으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아이디어가 이전에 Rhymesayers Entertainment라는 미국 언더그라운드에서 상당히 근본에 속하는 레이블 소속인데, 거기에 속한 앤모스피어(Atmosphere) 같은 팀이나 그리브스(Grieves) 같은 아티스트들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레이블 특유의 스타일이 잘 담겨 있는 곡이기도 하면서 아이디어가 곡 전반에서 드러내는 세상에 대한 염세적인 태도를 비롯하여 기본적인 랩이나 라임 스킬도 너무 훌륭해서 정말 오랫동안 많이 들은 곡 중 하나입니다.

여담으로 제가 한 때 외국 힙합보다 한국 힙합을 좋아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가사 해석을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총, 마약, 여자 이야기만 하더라구요.

물론 그런 메인스트림 곡들을 더 많이 신청 받다보니 생긴 편견이긴 했지만, 덕분에 꽤 오래 갔던 편견이기도 해요.

그런데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에서는 백인이 훨씬 많은데, 이들이 내는 감성이 한국 힙합의 그것과 비슷하더라구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든지, 우울감을 나타낸다든지 등 이런 걸 들으면 상당히 친숙하더라구요.

참 가사 해석이 저에게는 애증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 했다 보니까 안 하면 가끔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안 하면 사실상 잊혀지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가사 해석인데 내 이름이 안 나온다고? 싶기도 하고, 이 곡이면 댄스디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죠. 또, 요새는 유튜브에 가사 해석하는 계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이거 밖에 해석을 못 하는데 구독자 수가 이렇다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2만 곡 정도 해석했으면 이 정도 스웨거는 부려도 되겠죠? (웃음)

### Outro

#### 인터뷰 참여 소감

그 정도 하셨으면 이 정도는 겸손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의 “Even Shadows Have Shadows”를 인생 곡으로 골라주시면서 오늘의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었는데요.

줌터뷰에 직접 참여해보시니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재미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관종 끼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

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참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에 대한 음악 선정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신청을 하려다가도 망설였는데, 오늘 진행한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선방한 것 같네요.

사실 이런 콘텐츠를 사람들이 읽으면서 자기가 몰랐던 의외의 곡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듭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대단한 디거는 아니에요.

다들 아는 선의 음악을 듣기 때문에 앞서 말한 부분은 총족 시켜드리지 못 한 것 같아 민망하지만 어찌겠습니까? (웃음)

음악을 많이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귀감이 될 만한 플레이리스트인 것 같아요.

이그니토의 “Death Penalty”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매되는 음악을 위주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접하기 힘든 곡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인터뷰가 끝나기 전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제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최근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항상 응원하고 언제나 곁을 떠나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NOWIZTKI>가 결혼 장려 앨범이았다면 이 즐터뷰는 결혼 장려 인터뷰가 되겠네요.

결혼 장려로 한정 짓기보다 '사랑 장려'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모두모두 사랑합시다!

인터뷰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무척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khl

khlhomofficial@gmail.com  
@hausofmatters